

2023 청소년상담연구 · 246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책임 연구자 : 김 미 정

공동 연구자 : 유 성 렬

김 지 혜

남 진 연

이 지 은

이 나 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246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인 쇄 : 2023년 12월

발 행 : 2023년 12월

발 행 인 : 윤희식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 (051)662-3082 / F. (051)662-3008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디앤피

비매품

ISBN 978-89-8234-909-6 94330

ISBN 978-89-8234-001-7 (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간행사

COVID-19 이후 자살 및 자해, 도박중독, 우울 등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학업, 대인관계 및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담현장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인력 필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는 1991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자격제도가 시행된 이래 2003년부터 2022년까지 3만여 명의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 역량 유지·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및 정부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심리상담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상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역량을 도출하고, 향후 패널조사를 위한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패널조사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에 실시된 횡단 연구는 연구 시점 당시 청소년상담사의 단면적 특성만 파악할 수 있었으나, 패널 연구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 청소년상담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어떤 양상으로 변화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학계 및 상담현장에서 상담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가 일부 수행되었고 종단 연구는 전무한 상황에서 상담현장에 처음 종사하는 상담자가 더욱 전문성을 가진 상담자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을 토대로, 향후 청소년상담자로서 전문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종단적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를 위해 심층면접 및 조사에 참여해 주신 청소년상담현장 종사자 및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자분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자문을 해주신 학계 전문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 개발을 위해 힘쓰신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 유성렬 교수님과 본원 연구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패널조사 모형이 향후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구축 및 활용하는데 귀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상담분야 유일의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윤희식 윤희식

초 록

최근 도박중독, 비행, 학교폭력, 자살자해 등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소년상담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청소년상담은 1991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자격제도가 시행된 이래 2003년부터 2022년까지 33,817명의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였으며, 해마다 양성인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는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및 상담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자는 청소년상담기관, 초·중등학교, 대학 및 연구기관, 보호관찰소, 비행예방센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격취득자가 증가하고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청소년상담사연수부는 2013년부터 청소년상담사 취득자의 역량강화 및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종사자의 요구와 시대적 이슈를 반영해 교육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가 심화·다양화하고 있고, 심리상담 외에 다양한 역할이 기대됨에 따라 청소년상담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청소년상담사는 소속기관 및 청소년 호소문제유형에 따라 상담 외에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 즉,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무엇을 얼마나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은 공고하지 못한 현실이다. 특히 쉼터 입소 청소년,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상담하는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만성적 스트레스와 대리의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2019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조사 결과, 급여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높고,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 심리상담 행위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인접분야와의 차별성이 모호함으로써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혼란이 있으며 전문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한 필요역량이 상이해 교육·훈련과정을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담자 발달이론을 토대로, 초보상담자가 숙련상담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로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선정하고 청소년상담사 패널 조사 및 표본을 설계해 실질적인 패널조사 모형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조사 모형 개발을 위해 국내외 유사 패널조사 및 상담자 발달연구를 탐색하였고, 청소년상담현장 종사자 FGI 및 학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사항목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중단연구 사례 및 유사 패널조사 방법 및 내용 등을 검토하였고, 청소년상담사 주요 채용기관 및 급수별 양성인원 등 모집단 분석을 통해 표본규모 및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표본규모 및 추출방법은 중단연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다

음으로 조사항목별 측정도구 및 문항에 대해 학계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예비조사 문항을 확정하고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자 15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를 근거로 부적절한 문항을 제거하여 8개 변인, 총 246문항으로 정리하였고 향후 1차년도 조사에서 고려할 의견을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조사설계 및 표본설계를 기반으로 패널조사 모형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상담사의 변화하는 전문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영역으로 8개 변인¹⁾, 총246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청소년상담분야에서 근무하는 상담자 중,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1급을 제외한 2급, 3급 자격 소지자 중,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모집단을 선정하였다. 보수교육이수자 현황을 근거로 표본 설계한 결과, 1차 년도 조사의 응답자 수는 적어도 750명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자격 급수와 성별을 감안한 층화확률표집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상담자 발달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전망적 패널설계모형(multiple-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을 적용하며,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상 상위급수 취득을 위해 최소 2년~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한 바,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5년 정도 패널조사를 지속하고 목표 패널유지율을 75%로 설정하였다. 조사방법으로 TAPI(Tablet-Assisted Personal Interview²⁾) 기반의 방문면접조사를 적용할 경우, 패널 이탈자 처리, 패널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더해 조사완료시기까지 표본탈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상담에 입문한 초기상담자가 숙련된 상담자로 발달하는데 필요한 변인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패널조사를 실시하는데 앞서 필요한 표본설계를 바탕으로 패널조사 모형을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최근 정신건강 인접 분야 간 협력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청소년상담사 고유의 전문성과 발달과정상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알아보는 것은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경력개발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본설계를 기반으로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예비조사 문항의 적합성이 확보되었으나, 향후 통계 수요자의 요구 및 사회·정책 변화에 따라 문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요시간 및 불실성한 응답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해 조사 설계 및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5년 간 축적할 원자료에 대한 보관 및 접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데이터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

1) 상담자발달/상담자정체성/대리외상/상담자소진/직무스트레스/자기효능감/수퍼비전/상담자직무요구
2) 태블릿PC 기반의 개별면접조사

도록 패널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연구자 및 정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코드
북을 제공하거나 데이터 활용 학술대회 등을 기획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조사 모집단에서 청소년상담사 1급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 조사 모
집단을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를 중심으로 구성해 폭넓은 자격취득자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조사문항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방법이 문항내적합치도 및 내용타당도를 살펴
보는데 머물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 주요어: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상담자 발달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과제	5

II. 이론적 배경 6

1. 패널조사 연구	6
가. 국내 패널연구	6
나. 국외 패널연구	8
다. 전문직 종사자 대상 특수 패널연구	9
라. 요약 및 시사점	12
2.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이해	13
가. 청소년상담사 역할	13
나. 청소년상담사 인력 현황 및 실태	14
다. 청소년상담사 관련 선행연구	20
라. 요약 및 시사점	21
3. 상담자 발달이론과 연구동향	22
가. 상담자 발달이론	22
나. 상담자 발달모델	23
다. 상담자 발달 관련 변인	26
라. 상담자 발달 연구동향	27
마. 요약 및 시사점	28

III. 연구 방법 30

1.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절차	30
가. 패널조사 기획 방향 수립 및 조사 설계	30
나. 표본설계	30
다. 예비조사 실시 및 평가	31

IV. 연구 결과 32

1. 조사 설계	32
----------	----

가. 조사영역 및 변인	32
나. 청소년상담현장 종사자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34
다. 조사항목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1차)	44
2. 표본 설계	46
가. 조사 목적	47
나. 조사 대상	48
다. 패널조사로서 고려 사항	49
라. 표본 설계	51
마. 조사 방법	53
바. 응답자 관리	54
3. 예비조사 실시 및 평가	55
가. 예비조사 문항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3차)	55
나. 청소년상담현장 종사자 예비조사	57
4.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	72
가. 최종 조사설계	73
나. 최종 표본설계	75

V. 논의 | 76

1. 요약	76
2. 논의 및 제언	77

참고문헌 | 84

부 록 | 93

1. 포커스그룹(FGI) 인터뷰 질문지	94
2. 전문가 자문 질문지(1차, 2차, 3차)	98
3. 예비조사 대상자 모집 설문지	103
4. 예비조사 문항 및 최종문항	106

Abstract | 122

표 목차 |

표 1. 청소년상담사 발달과 관련한 1차 변인	32
표 2. 청소년상담사 발달과 관련한 2차 변인 및 척도 정리	34
표 3.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인적사항	35
표 4.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36
표 5. 청소년상담현장 종사자 FGI 분석 결과	38
표 6. 개인적·맥락적 요인	44
표 7. 패널조사 항목 및 측정도구(1차)	45
표 8. 급수별 청소년상담사 현황	48
표 9. 성별 청소년상담사 현황	48
표 10. 2022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자 현황	52
표 11. 표본 프레임의 성별 및 자격급수별 구성 분포	52
표 12.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의 성별 및 자격급수별 표본 배분	53
표 13. 패널조사 항목 및 측정도구(3차)	56
표 14. 예비조사 응답자 기본 특성	58
표 15. 상담자 발달 변인 신뢰도 분석 결과	59
표 16. 상담자 정체성 변인 신뢰도 분석 결과	61
표 17. 대리외상 변인 신뢰도 분석 결과	62
표 18. 상담자 소진 변인 신뢰도 분석 결과	64
표 19. 상담자 스트레스 변인 신뢰도 분석 결과	65
표 20. 자기효능감 변인 신뢰도 분석 결과	66
표 21. 슈퍼비전 변인 신뢰도 분석 결과	68
표 22. 상담자 직무 요구-자원 변인 신뢰도 분석 결과	70
표 23. 최종문항 및 내용 요약	73
표 24. 최종 표본설계	75

그림 목차 |

그림 1. 연구 추진 절차	31
그림 2.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	72

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최근 인터넷 중독, 도박, 비행, 학교폭력, 가출 등의 다양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청소년의 자살 및 자해 등 정신건강이 심각해지고 있어(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청소년의 심리 내외적 문제들에 대해 청소년 상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정숙, 2021; 조은희, 천성문, 2021). 그러나 청소년의 발달과정 특성상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청소년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담에 있어 비자발적인 태도를 보인다(김은지, 강민희, 장재홍, 2016; 나하주, 한영주, 2017). 또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므로 가족이나 주위의 권유에 의한 상담을 거부하여 진행이 쉽지 않다(김지민, 임영식, 2018). 그러나 청소년기에 필요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인기까지 문제로 이어지며, 나아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양재원, 배주미, 강석영, 박용두, 송미경, 2010; 오경자, 2006, Cohen, 1998), 청소년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상담 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고 있다(양미진, 조수연, 이소엽, 2012). 청소년상담사는 1991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자격제도가 시행되었다. 상담분야에서 유일한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33,817명의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였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청소년상담사는 1급, 2급, 3급과 같이 급수별로 양성되고 있으며, 급수별로 요구되는 자격과 역할을 구분하고 있다. 자격시험과정에서 이미 전공분야를 졸업하거나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며,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이후 100시간의 자격연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청소년상담사를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상담사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상담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학교 및 교육청,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등에서 청소년상담사를 채용자격에 포함하거나 우대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공적영역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07년부터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2013년부터 보수교육 의무대상기관 및 의무대상자를 지정하였다. 2022년 기준으로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는 3,698명으로 의무대상자가 아닌 청소년상담사를 포함해 총 5,924명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b, 2022).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 청소년상담사의 역량강화 및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기준 100여 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수교육을 통해 청소년상담사들이 청소년 성장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상담사는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과 자격취득 이후에도 단계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상담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는 다양화되고 새로운 이슈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소수연, 조은경, 조은희, 박선우, 전환희, 이동형, 2016). 지금까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과정은 해마다 전문가 자문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사의 수요를 파악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소년상담사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있어 전체 청소년상담사의 의견을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시대적인 요구와 상담현장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문제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커리큘럼의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상담사의 요구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부적응 등 위기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상담원리와 기술에 대해 훈련받은 전문가로서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구분용, 2008). 그러나 상담현장에서 청소년상담사는 상담 외에도 조직관리, 네트워크 구축, 아웃리치, 위기 청소년개입 등 다양한 직무와 역량이 요구받고 있다(김현미, 최인화, 권현용, 2010; 양미진, 조수연, 이소엽, 2012).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상담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와 청소년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김동일, 이주영, 2022). 특히,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타 직군에 비해 다중역할을 요구받고 있어 직무과다로 인한 소진과 무력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김지민, 임영식, 2018; 이영애, 2015, 박호용, 민경화, 2021; 정진, 송미경, 2021). 더욱 심각한 것은 쉼터, 아동학대, 성폭력 등의 위기청소년을 상담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대리외상으로 인해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거나 신체화 증상이 나타났다(이영선 등 2012). 실제로 성폭력 기관 종사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35%가 대리외상에 따른 신념의 왜곡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희경, 장성숙, 2016).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상담현장 종사자의 위기 수준과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상담사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상담사의 직무와 직무스트레스 등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청소년상담사가 경력이 많아지면 직무환경 스트레스가 다소 낮아지긴 하지만 경력이 많아지더라도

도 직무환경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영애, 변상해, 2015). 청소년상담사는 3년 미만의 경력을 청소년상담사가 심리적 소진 전체 평균이 제일 높게 나왔다. 청소년상담 상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와 3~5년 사이, 6~8년의 상담경력을 가진 청소년상담사의 소진 하위요인 중 ‘무능감’에서 가장 높았으며, 9년 이상의 경력에서는 ‘신체적 피로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양미진, 조수연, 이소엽, 2012).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청소년상담사가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에는 횡단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 청소년상담사 발달·경력 변화에 따른 직무환경 스트레스와 소진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을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태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종단적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청소년상담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상담에서는 상담자 스스로가 상담도구로 활용되고 있어(Leva, Ohrt, Swank & Young, 2009), 상담자가 가지는 인간적 자질을 포함하여 그들의 역량과 전문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한편, 상담사로서 역량과 전문성은 역동적이고 복잡한 현상이며, 장시간 지속적으로 변화한다(Jennings & Skovholt, 2004). 상담자별로 각자 다른 성장 단계와 발달을 보이며 그 수준 역시 다양하다(정문주, 조한익, 2016). 상담자발달은 초보상담자에서부터 숙련 상담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발달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론이다(금명자, 정상화, 2021).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상담자의 상담전문가로서의 성장과정을 발달적으로 조망하는 상담자 발달이론을 기반으로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상담자 발달에 대한 관련 이론과 모델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지난 30여 년간 축적된 연구를 토대로 상담자 발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고(금명자, 정상화, 2021; 최한나, 2005; 정문주, 조한익, 2016), 상담자의 소진, 수퍼비전, 작업동맹, 역전이 관리능력 등에 대한 메타분석(박진솔, 이영애, 2020; 류진아, 방은진, 신혜민, 2021; 조은실, 이지영, 차윤지, 백인규, 양은주, 2022; 문화선, 이영애, 2022)등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존의 상담자발달 관련 연구가 주로 횡단연구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표본확보를 통한 종단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안수연, 하문선, 2022; 윤정흠, 최한나, 2022).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발달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상담자의 전문성 및 역량, 상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교육과정, 상담기술, 직무환경 등의 변인을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조사 문항으로 구성하여 청소년상담사 대상 교육과 지원 등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담관련 분야에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가 양성된 지 20년이 지났으며, 코로나 이후 심각해진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직접 대응하는 청소년상담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조사에 따르면(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1, 2013, 2019) 2011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상담 2,013명중 74.1%, 2013년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상담사 1,924명 중 37.4%가 비정규직이었으며, 평균 석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조사에 참여한 3,006명 중 상담복지분야 취업자는 63.8%에 불과한 1,919명으로 나타났으며 상담복지취업분야에 관심이 없는 이유로 급여 및 근무환경 불만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 자격증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인력의 활동분야 및 고용환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화하는 청소년 문제에 따라 청소년상담사의 직무 및 필요역량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상담사의 직무와 역량과 관련한 기존 연구로는 청소년상담사의 소진(김지민, 이영식, 2018; 양미진, 조수연, 이소엽, 2012; 이영애, 변상해, 2015), 직무만족도(이영순, 정봉희, 조혜경, 2007), 청소년상담사의 역량(조수연, 양미진, 2013),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유용성 척도(2016)에 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사의 직무와 역량과 관련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최근에는 전문한 실정이므로 청소년상담사의 직무환경에서의 현황과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기초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자 발달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들과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상담자 발달이론을 토대로 패널조사 문항을 도출하여, 청소년상담사의 발달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할 수 있는 기초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청소년상담사의 발달을 장기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각 시기에 발생하는 청소년상담사의 실태와 요구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상담사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성 높은 숙련상담자로 발달하는 과정을 장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와 보수교육의 커리큘럼을 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변화하는 청소년 문제 대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청년상담사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 전문역량 및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역량,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 정책과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과제

본 연구는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 모형을 개발하는 기초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여 패널조사의 기본적인 방향을 수립한다.

둘째, 상담자 발달이론을 토대로 상담자와 청소년상담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패널조사 영역 및 조사문항을 구성하고 조사 설계를 마련한다.

셋째, 국내외 유사 패널조사 사례를 검토하고 청소년상담사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표본설계를 도출한다.

넷째, 패널조사의 모형으로 조사 설계와 표본설계로 구성된 패널조사 모형을 개발하고 향후 패널 데이터 구축을 위한 고려 사항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패널조사 연구

가. 국내 패널연구

종단자료의 필요성과 패널연구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패널자료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생산되고 있다. 청소년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 패널연구로는 한국청소년패널,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 Education Logitudinal Study),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청년패널(Youth Panel),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등이 있다. 각 패널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항목 및 활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청소년패널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패널로, 청소년의 진로설정, 진로준비, 여가, 일탈행위 등의 태도나 행위의 횡단적 실태와 종단적 변화양상 및 변화 원인에 대한 이해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청소년패널은 전국 중학교 2학년 학생 중 표본으로 선정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중 중학교 2학년생인 200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이후 1년 차 시점인 2008년까지 6년 동안 추적 조사하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표본으로 선정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생인 2004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점인 2008년까지 5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중다전망적 패널설계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패널은 통계DB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계 연구자에게 보급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연구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교육종단연구 패널은 전국 중학교 1학년,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지적, 정서적 성장발달에 미치는 학교효과를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직업세계 이행에 대한 학교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다. 현재 2005년 중학교 1학년 6,908명을 2020년까지 조사한 2005 코호트와 2013년 초등학교 5학년 7,324명을 2030년까지 조사하는 2013 코호트로 구성되고 있으며, 2021년을 기준으로 2013 코호트의 9차 조사가 진행되었다. 두 코호트 간 즉, 10년간 학생들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각 코호트 내에서 학생 성장, 진학, 직업획득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정책 수립 및 대안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주체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 중학교, 일반계·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12년간 패널조사 I, 2016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패널조사 II를 실시하였다. 패널조사 I 이 2000년대 초반 중·고등학생들의 교육경험과 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패널조사 II는 교육정책 및 노동시장 변화 및 중등·고등교육의 사업성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청년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정착과 청년취업 등의 현안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청년패널은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2001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2001년 기준 만15~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축된 1차 프로젝트(YP2001)와 2007년 기준 만15~2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축된 2차 프로젝트(YP2007)로 구성되어 있다. 1차 프로젝트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표본 5,956명에 대한 추적조사가 종료되었으며, 2차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표본 10,206명을 새로이 구축해 2020년까지 추적조사가 이루어졌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와 한국교육중단연구는 특정학년을 중심으로 학교표집의 방법으로 연구를 설계한 것에 비해 청년패널은 청장년층 연령대 전부를 대상으로 가구표집을 통해 연구를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을 주체로 수행되고 있는 패널조사로 전국 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직장)이동경로를 파악해 교육·노동시장 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6년에 2004년 8월 및 2005년 2월 대졸자 26,000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3차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대신 2009년 기준 횡단면 조사로 시행되던 조사대상을 2년 주기 1회 추적하는 단기패널조사로 설계가 변경되었다. 조사된 표본 수를 살펴보면 장기 패널조사로 기획되었던 2006년 조사는 26,544명, 단기 패널조사로 변경된 이후 해마다 18,000명 이상의 표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 조사는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학교 및 전공별 노동시장 성과를 제공해 합리적인 대학·전공 선택을 돕는데 있어 큰 의의가 있다.

한국노동패널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패널 조사로 단편적인 조사만으로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를 패널로 얻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표본으로 추출한 5,000가구와 이들 가

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매년 조사가 실시되어 2021년 기준 제24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조사대상은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24차 조사에서 3,161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11,838명에 대해 조사 완료하였고, 원표본 5,000가구 기준 63.2%의 표본유지율을 보였다. 표본유지를 위해 2009년 12차 조사, 2018년 21차 조사에서 표본추가를 통해 전국지역 대표성 확보와 패널탈락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응답률 유지, 방문면접 거절의 문제 보완을 위해 9차 조사부터 노트북을 이용한 면접조사로 변경하고 2019년 22차 조사에서 웹 조사를 일부 도입하면서 조사방법을 개선하였다. 조사내용은 가구용과 개인용, 부가조사 및 직업력 자료로 수거되며 가계경제,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비)임금근로자 특성,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근무형태 영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상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나. 국외 패널연구

해외의 대표적인 패널조사로는 미국의 소득역동성패널연구(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 영국의 가구패널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HPS), 독일의 사회경제패널(Socio Economic Panel: GSOEP)가 있고,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의 가계패널조사(Japan/Keio Household Panel: JHPS/KHPS), 대만의 가정 동태 데이터베이스(Panel Study of Family Dynamics: PSFD)가 있다.

미국의 소득역동성 패널연구 PSID는 미국 가구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역동을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968년 시작된 이후 약 50년에 걸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미시간대학 조사연구센터(the Survey Research Center: SRC)에서 진행하였으며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한 대표적인 패널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인구학적·경제적 자료 수집에 중점을 두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경제적 이슈를 반영한 항목들이 추가되었다. PSID 자료는 다양한 학문분과(빈곤연구 및 심리학, 의학, 보건학 등)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영국의 가구패널조사인 BHPS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영국 가정(개인)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해, 변화의 원인과 결과 분석, 예측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수행기관은 에식스(Essex)대학 사회경제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ISER)와 경제사회조사협회(Th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의 영국중단연구센터(UK Longitudinal Studies Centre: ULSC)로 ULSC에서는 패널조사 이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ISER은 BHPS 및 국외 패널을 활용하여 사회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

는 패널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수행한다.

독일은 리서치연합센터(German Research Foundation's Collaborative Research Center)는 1983년 센터의 사업으로 '사회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미시적 수준의 데이터 확보'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가구 패널조사의 기초를 설계하였다. 유럽 최초의 가구패널조사인 독일의 사회경제패널(Socio Economic Panel: GSOEP)조사 SOEP는 1984년 시작으로 독일 인구 및 소득 통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SOEP 데이터 분석 연구는 독일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일본 내 사회과학의 연구·정책평가 분석, 신뢰할 만한 데이터에 의한 평가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2004년 게이오가계패널조사(KHPS), 2009년 일본가계패널조사(JHPS)를 실시하였다. KHPS는 주로 취업, 소비, 소득, 주택 등의 내용을 조사하였고 JHPS는 취업, 소득, 교육, 건강·의료 등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KHPS와 JHPS는 각각 개별 조사로 실시·관리되어 왔지만, 2014년부터 두 개의 조사표를 통일화하여 데이터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게이오대학 패널데이터 연구센터에서 KHPS와 JHPS의 조사표나 이용신청·보고서를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다.

대만의 가정 동태 데이터베이스 조사 PSFD는 대만에서 시작된 중국 가정의 성인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고정표본 추적조사(panel)로 청소년부터 노인까지를 대상 연령층에 포함한다. 패널조사의 구상은 중국인 사회의 가정 형태, 구조, 상호 패턴에 기초를 두고 있고 중국인 가정의 경제, 사회, 심리, 관습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료 수집의 경우 기존의 유관 이론이 대만 사회에 적용 가능한지 살펴보고 다른 한 편으로는 데이터가 나타내는 사실을 기반으로 서양의 이론과 다른 새로운 이론을 발굴하고 추출하여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 전문직 종사자 대상 특수 패널연구

패널조사는 동일대상에 대해 장기간 추적조사 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실증적 변화를 심층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패널 유지관리에 큰 비용이 소요되고 패널 탈락률이 큰 경우 데이터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주체 입장에서는 패널 유지와 관리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조사단위를 개인으로 한 패널 중, 특정 경력 및 훈련이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패널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사설 전문 조사기관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거나 공공부문에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형태·직종별 노동력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치

는 실정이다. 특정 직능수준 또는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구축된 국내 특수 패널은 다음과 같다.

여성관리자패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유일한 여성패널로, 기업 내 여성 관리자의 입직, 근로실태, 경력개발, 리더십, 일 생활 균형실태, 조직문화, 네트워크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신용평가(주)의 기업 데이터에서 추출된 기업을 단위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기업의 여성 대리급 이상자를 추출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성 관리자 패널은 2007년 2,361명의 기존표본을 대상으로 1기 1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고, 2012년 918명의 신규 표본을 추가하였고 2018년 2,699명을 대상으로 7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다. 2018년 기준 표본유지율은 53.0%로 표집의 지속성 한계와 패널 유실이 가중되며 2019년 조사방향·방법을 보완하고 남성 관리자를 추가해 2020년 2기 1차년도 조사를 실시해 여성 관리자 3,500명, 남성 관리자 1,500명, 총 5,000명의 패널을 구축해 2022년 패널 5,011명 및 인사담당자 604명을 대상으로 2기 3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여성관리자패널은 여성근로자의 경력 형성 과정에서 직업의식 및 커리어 개발에 대한 의지나 요구가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사건에 따라 종단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여성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여성 관리직 진출 및 경력개발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기여하고 있다.

서울교원패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 대상 종단연구로, 교원 지원 정책 제안 및 교육 질 향상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2019년 본 조사 실행에 앞서 2017년 패널 구성 및 조사항목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투입단계(교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과 전문적 배경), 과정단계(업무 및 전문성 개발), 산출단계(교원에게 필요한 역량, 태도 등) 및 교사를 둘러싼 맥락(학교,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조사 필요영역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2018년 연구의 기본 모형과 조사영역, 조사 설계를 마련해 2019년 문항개발 및 타당화 연구를 통해 본 조사용 문항을 타당화 하였다.

서울교원패널 본 조사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2020년 학교급과 교직경력별 코호트에 따라 2,425명을 대상으로 1차 년도 본조사가 완료되었다. 조사영역은 개인/학교/정책 및 제도의 특성/전문성 개발활동/여가활동/역량 및 웰빙으로 구성되었고 그 외 교직원, 학교특성, 정책·제도 이해도 등을 측정하였다. 2022년에는 2,475명을 대상으로 2차년도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중도 탈락률은 약 26%로 나타났다. 서울교원종단연구는 기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던 조사를 탈피하여 교원이 교직에 머무르는 동안의 내·외적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코로나 19 시기 신규교사의 교직적응, 교원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및 학교급·경력별 현황 및 역량

과약을 하는데 신뢰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의사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 의사패널 분석 및 패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기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대한 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조사시스템이 부재하고 회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했기 때문에 응답률 및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2020년 ‘의사패널 구축 및 운영방안’을 통해 추진전략 및 추진 절차를 도출하는 등 의사패널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조사 대상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정의된 법령은 없으나 사전적으로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전문가’의 개념과 같고 사회 통념상으로 ‘전문직’은 직업분류상 ‘전문가’에 포함해 같은 의미로 간주하고 있다. 직업 분류기준으로는 고용노동부의 ‘한국고용직업분류’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전문가’에 해당하는 직종과 분류기준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2017)의 직업 대분류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해 해당 분야를 연구, 개발 및 개선하는 직업으로, 제4직능 수준(4년 또는 그 이상의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수준 또는 훈련을 필요) 혹은 제3직능 수준(일반적으로 중등교육을 마치고 1~3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과정 또는 직업훈련을 필요)이 필요하다.

심리상담도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지식,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며(김영근, 김현령, 이정인, 신재훈, 신동미, 이상민, 2012) 한국상담학회의 경우 1급 취득을 위해 최소 석사학위 취득 후 3년간 720시간, 한국상담심리학회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 후 3년간 개인상담 400회 이상, 수퍼비전 50회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한국상담학회, 2018).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에서도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전문인력을 세분류 코드 2312번 ‘상담전문가’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 가족, 조직의 심리, 정서, 관계, 문화와 관련된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심층적인 내면을 탐색하고 이것이 내담자의 사고, 행동, 정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 문제를 진단하고 심리검사, 상담 프로그램 등의 도구나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예방교육, 발달지도 및 치유활동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상담전문가에 속하는 직업 예시 중 하나로 ‘청소년 상담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전문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며, 상담전문가의 전문영역 및 역할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이 다양하고, 상담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공인자격 및 법률도 부재해 청소년상담사를 제외하고는 상담전문가의 정체성 및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소년상담사 자격 또한 청소년 관련 기관 중

사에 활용되고 있으나 이마저 독점 자격이 아니다 보니 다른 자격증으로 인력의 대체가 가능하다(김인규, 2018; 최정아, 2018). 즉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전문성 및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패널조사 설계 및 결과 활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 요약 및 시사점

요약하면 국내 패널조사는 1990년 후반부터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소 5년, 최대 20년 이상 추적하여 종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별로 패널을 구성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표본이탈을 최소화하고자 표본을 추가하거나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조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또는 특정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진행할 경우, 표본 추출 틀에서 조사단위가 상이하고 조사 대상자의 퇴사, 이직, 경력단절 등의 이슈에 따라 시간과 비용, 추적조사에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국외패널은 보다 50년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빅데이터를 사회전반적인 변화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조사와 실행기관이 분리되기도 하고, 개별 조사가 통합되어 관리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모니터링하거나 대응하는 데 보다 전략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패널데이터 구축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실행 기관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패널모형은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보다 장기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전문가로서 청소년상담사의 발달에 초점을 두면서도 나아가 청소년상담사가 다루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명실공히 청소년 상담 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이론을 발굴하고 추출할 수 있도록 패널조사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종합하면 패널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 조사 주제를 고려해 조사 설계에 대한 면밀한 탐색이 필요하며, 표본탈락에 대응하고 표본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 비용적 노력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패널조사를 통해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특성을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상담 종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간 축적된 결과를 통해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발달, 근로 실태 및 경력 개발에 대한 다각도의 설명이 가능하면서 청소년상담 관련 현장 이슈에 대응하고 지원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이해

가. 청소년상담사 역할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로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 상담 전문 인력 자격이다. 청소년상담사는 2003년 자격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어 2022년까지 20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급 1,194명, 2급 13,077명, 3급 19,546명으로 총 33,817명의 청소년상담사가 양성되었다. 이와 같이 양성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증가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일부 청소년상담관련 기관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관련 기관에서는 채용조건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 기관이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상담사는 인원이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할도 확대되어가고 있다. 여러 학자는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김두현(2009)은 일반 상담자의 역할과 더불어 청소년상담사로써 다양한 역할에 대한 수행능력을 요구하였는데, 그 역할을 일반적 상담자 역할, CYS-Net 연계망 연결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 위기 분야별 전문가와 치료 및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청소년 욕구와 위기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는 역할 등 총 5가지로 제안하였다. 정지희, 조은경, 남진연, 김지훈(2019)은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 상담기관에서 다양한 청소년문제에 전문적인 상담개입을 하는 자이며, 청소년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발달, 예방, 교육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정의하였다. 김동일, 이주영(2022)은 청소년상담사의 정의와 직무가 법률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청소년상담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상담사의 직무는 첫째,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심리교육의 실시, 둘째,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셋째,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개입, 넷째,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다섯째, 그 밖에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기타업무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학자에 의해 제시되는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은 상담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청소년상담관련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가 근무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기관의 특성상 청소년상담 업무 외에도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을 구축함으로써, 위기청소년 및 심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청소년상담사는 상담뿐만 아니라 지원활동까지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아웃리치에서부터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연계, 법률지원,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김현미, 최인화, 권현용, 2010). 양미진, 조수연, 이소엽(2012)에서도 청소년상담사 중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하여 상담직무 이외에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이나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기관연계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2016)는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해 상담뿐만 아니라 교육, 특별지원, 그리고 가출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보호와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비행 및 일탈청소년 등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 및 적응에 대한 지원과 선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현장의 변화에 따라 위기청소년을 포함하여 상담, 지원, 법률적 지원, 특별지원, 보호 등의 역할까지 확대되고 있다.

나. 청소년상담사 인력 현황 및 실태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 이후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연구가 실시되어 왔다.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회가(2006년, 2008년, 2011년, 2013년, 2016년, 2019년) 진행되었다. 인력현황조사는 청소년상담사들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여 취업 실태, 자격증 기여도 및 활용, 직무분석을 주로 실시하였고 추후에는 보수 관련 영역, 상담관련 영역 등을 포함하여 조사가 시행되는 연차에 따라 다각적으로 청소년상담사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청소년상담사가 현장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황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1) 2006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결과

2006년에 실시된 인력현황 조사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청소년상담사 1,2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중 조사에 응답한 1,038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분석은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학력과 전공, 직업 현황, 자격증 기여도 및 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주요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에 응한 1,038명의 청소년상담사 중 80.3%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취업자였으며, 3급의 경우 16.1% 직업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체 급수 중 가장 높은 직업 미경험 비율을 차지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중·고등학교, 재단/사단법인체 상담실 등에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었다. 직책의 경우 1급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관리직, 교수, 상담원/치료사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2급은 중간관리자급으로 상담과 실무를 담당하는 상담원/치료사가 많았다. 3급의 경우는 상담원/치료사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차지했지만 2급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기타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상담관련 기관보다는 아르바이트, 공무원, 교사 등의 다양한 직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의 기여도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0%이상이 자격증 소지에 따른 성취감으로 응답하였다. 성취감 외 응답현황으로는 1급은 대내외적인 인정을, 2급과 3급의 경우 청소년상담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대내외적인 인정과 더불어 개인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성취감을 획득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청소년상담사가 새롭게 진입 혹은 넓힐 수 있는 영역으로 대안학교 상담, 아동보육 시설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기를 바랐으며, 정부기관 및 지역사회 공공기관 분야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이는 좀 더 제도화된 체계 내에서 ‘청소년상담’의 역할과 지위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상담자들의 욕구가 드러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8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결과

2008년에 시행되었던 인력현황 조사는 2003년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2,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중 최종 1,518명이 응답하여 분석되었다. 해당 연도의 인력현황 조사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새로 제작하여, 인력뱅크 구축 관련 개인정보 기재 및 동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내용은 기초적인 인적 및 학력사항, 직업 현황, 자격증 기여도, 교육확대 분야, 인력뱅크 구축 정보, 2006년도와 2008년도 현황 비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다. 인력현황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도 인력현황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상담사들이 진출하고 있는 새로운 영역이 제시되었다. 청소년상담사들은 주로 아동·청소년상담기관, 학교, 민간상담기관, 대학상담센터

터 등으로 진출하고 있었으며, 새롭게 제시된 영역으로는 군, 경찰관련 기관, 지역사회 기관(공부방, 도서관, 사회교육원 등), 방송기관(교육방송 등), 사설 교육기관(학원, 유학원 등) 등이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상담사들이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영역에서 청소년상담사 진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상담사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상담관련 교육과 대상별 특화된 교육, 청소년상담현장 실무에 필요한 기관 운영 및 행정 등 상담뿐만 아닌 다양한 교육 등이 제안되었다. 희망하는 교육과정 중 새롭게 요구된 교육으로는 ‘다문화가정’, ‘새터민 대상’ 등의 대상별 교육, ‘영성상담’, ‘모래치료’, ‘명상’ 등 특성화된 상담 교육, ‘회계 및 예산’ 등과 같은 실무 영역이 있었다.

셋째, 청소년상담사 인력뱅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청소년상담사의 취업을 향상시키고 인력현황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응답자의 78%가 청소년상담사 인력뱅크 구축 시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는 청소년상담사들이 향후 진로와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3) 2011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결과

2011년 인력현황 조사에는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청소년상담사 4,070명 중 2,01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은 인적사항, 업무 특성, 자격증의 기여도, 교육 및 수련관련, 경력, 소진, 시계열 비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고용모델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드러났다. 청소년상담사의 35.9%의 고용형태만이 정규직이었으며, 그 외 대부분인 74.1%의 청소년상담사들이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잦은 이직으로 연결되어 지속적 업무파악과 현장 노하우 전수 및 개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청소년상담사의 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2010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학사 학위 평균 임금의 65% 수준에 준하는 낮은 임금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청소년상담사들이 겪는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수퍼바이저 부재’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슈퍼비전 기회 부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3급의 약 60%가 6개월 이상에 한 번 씩 슈퍼비전을 받는다고 보고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상담사 3급 취득자의 경우 타 급수에 비해 ‘무능감’을 자주 느끼며 심리적 소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청소년상담사의 관련 근본적인 보수교육 시스템 및 교육비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함이 나타났다.

셋째, 2011년 인력현황 조사는 이전의 인력현황 조사와는 달리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막는 방해요인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조사하였다. 관련하여 청소년상담사의 소진에 대한 설

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진의 유형은 업무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후 교육적 측면의 지원뿐 아니라 개인의 역량 개발과 그것이 현장에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사의 소진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보급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4) 2013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결과

2013년 인력현황 조사에는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청소년상담사 6,097명 중 본 조사에 응한 1,92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은 기초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자격증 기여도, 업무관련 특성, 교육 및 수련, 경력, 직무 분석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상담사의 소속지역은 전체 현황 및 급별 순으로 살펴보았을 때, 모두 서울(25.4%)과 경기도(21.8%)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반면에 충북, 강원, 울산, 대전, 제주 등은 3%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상담사 부족에 따라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사의 지역 편중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에 국가자격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적극 홍보와 필기시험 및 보수교육의 지역 실시, 상담전문가 양성과정의 활성화 지원 등 제도적 도입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청소년상담사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전일제)이 37.4%로 정규직(29.1%)의 형태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청소년상담사는 대부분 아동·청소년상담센터나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청소년상담사의 주요 활동 기관인 아동·청소년상담센터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비정규직이나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상담사 역할의 중요성이 학교현장에서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약 70%의 청소년상담사가 비정규직이나 다른 형태로 고용되었음을 의미하여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청소년상담사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고용모델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상담사의 주 업무는 ‘상담’으로 주로 10회 내외의 상담을 수행하며 청소년 중 대부분 ‘중학생’ 내담자이면서 비자발적인 내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호소문제는 대인관계와 가족문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상담개입방법에서의 유능성이 요구되었다. 청소년 위기문제 외에도 대인관계, 학업·진로, 가족문제 등 일상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상담사는 상담업무 외 교육 및 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하고 있었는데, 추후 보수교육 개설 시 청소년상담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영역뿐 아니라 행정, 기관운영 등 현장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개설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사 3개 급수에서 상담영역은 직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속기관 지위에 따라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실제 실행하는 인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인력현황 조사에서는 1급은 상담행정 및 교육에서의 지도인력, 2급은 실제 전문 인력, 3급은 실행인력 등으로 등급별 역할에 대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5) 2016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결과

2016년 인력현황 조사에는 청소년상담사 11,77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중 설문에 응한 3,148명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은 기초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취업 실태, 자격증 활용, 상담 경력 및 내용, 보수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상담사의 취업 실태에서 미취업자의 비율(19.0%)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자 중 Wee 스쿨·센터·클래스 소속(16.9%)이 많았고,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15.6%)로 많았다. 급수별로 살펴보자면 3급의 경우는 소속기관이 없는 비율이 높았고, 1급과 2급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무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청소년상담사 3급 취득자 대부분이 대학원생인 경우가 많고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소속기관이 있는 청소년상담사 40.8%가 전일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많은 청소년상담사들이 고용형태가 안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상담사의 원활한 취업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청소년상담사들이 일할 수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청소년상담사들은 50%가 넘는 비율로 평균 학력이 석사학위 취득자이다. 높은 교육수준에 비해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라고 응답한 비율(42.9%)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00만원 미만(소득 없음)' 의 비율(29.9%)이 두 번째로 높았다. 열악한 월급환경에도 소속 기관 내 교육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로 나타나 이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처우 개선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연봉수준을 정상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 최소화', '업무내용 합리적 조정', '휴가 및 휴직 제도의 활성화'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현재 소속기관 취업 시 유리하게 적용되는 자격증으로 실효성이 있는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 80%의 청소년상담사는 진로개발(취업, 승

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격증 취득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3년 이내에 상위 등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로 ‘자기 발전을 위한 것’ 이라고 응답한 비율(60.2%)이 가장 높았다. 이는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사 상위 등급 자격증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사들이 상담업무 진행 중 겪는 어려움은 20.4%로 ‘상담기술의 부족’ 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상담기술의 부족을 가장 많이 느끼는 자격증 급수는 3급이었으며 이에 비하여 1급, 2급은 ‘통제 불가능한 외부환경’ 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런데 3급 취득자들이 상담기술의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6.7%가 상담 수퍼비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상담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퍼비전 제공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보수교육 등을 통해 상담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6) 2019년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 조사 결과

2019년 인력현황 조사에는 청소년상담사 18,1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중 설문에 응한 3,006명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은 기초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취업 실태, 자격증 활용, 상담 경력 및 내용, 미취업자 지원관련, 보수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자 3,006명 중 취업자는 2,468명으로 82.1%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중 상담복지 분야의 취업자는 1,919명(63.8%)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사유로는 ‘육아/가사’ 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청소년상담사의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미취업자들의 91.8%가 상담복지 분야 취업에 관심이 있었고 취직 희망 기관 유형은 ‘학교상담실’ 42.3%, 청소년상담센터 42.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담복지 분야 취업에 관심 없는 이유로는 ‘급여 및 근무환경 불만족’ 이 41.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둘째, 청소년상담사 양성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청소년상담사들은 주로 취업관련 정보를 취업정보 사이트(22.4%), 지인(22.1%), 학회 홈페이지(15.9%),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10.7%)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는 청소년상담사들이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필수 가입 사이트이기에 취업정보를 집합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하고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미취업자들을 위하여 취업지원 관련하여 연수기관에서 기대하는 사항을 분석하였는데, ‘상담전문교육’, ‘NCS정보제공’, ‘모의면접’ 등을 응답하였고, 이는 청소년상담사 취

업박람회와 같은 실질적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청소년상담사들은 자격 취득의 이유로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49.8%)’, 상담에 도움이 되어서(49.5%),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48.0%)’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상담사들이 상담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진로개발(취업, 승진)에 전반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대하여 긍정적 응답이 81.2%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은 ‘청소년상담 역량 향상’, ‘성취감’, ‘다양한 기관 지원 자격요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성취감이나 전문역량 향상과 같은 개인영역에서 도움이 되고 있지만, 취업우대 및 법적 신분보장과 같은 공적영역에서도 기여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 청소년상담사 관련 선행연구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상담자, 청소년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사 등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인이 아닌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에 한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상담사의 소진(김지민, 이영식, 2018; 양미진, 조수연, 이소엽, 2012; 이영애, 변상해, 2015), 직무만족도(이영순, 정봉희, 조혜경, 2007), 청소년상담사의 역량(조수연, 양미진, 2013),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유용성척도(2016)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상담사의 소진에 대해서는 양미진, 조수연, 이소엽(2012)이 2010년까지 자격을 취득한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사의 직무 환경적 특성에 따른 상담자 소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근무형태에서는 전일제 계약직이, 기관에서의 담당업무에서는 상담관리직과 사회복지사, 행정지원 업무 담당자가, 내담자 연령에서는 중학생을 상담하는 경우 높은 소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개인특성으로는 여성, 20~29세의 연령, 청소년상담사 3급, 전문학사 또는 학사 재학 중인 청소년상담사가 가장 높은 소진을 보였다. 이영애, 변상해(2015)는 청소년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 관계에서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직무환경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도전기회의 부족’과 ‘역할보호성’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민, 임영식(2018)의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가 직무환경특성의 하위요인 중 역할보호와 역할과다가 직무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공감피로도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상담사의 근무시간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 승진, 기관, 인간관계, 기관자체, 전직 및 이직의 순으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순, 정봉희, 조혜경, 2007). 또한 직무특성에서는 직무과악과 다양성이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상담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3년 경력 상담사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년~5년 경력의 상담사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청소년상담사의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만족도,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도출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조수연, 양미진(2013)은 델파이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상담사의 역량모형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상담, 일반, 교육, 행정, 경영, 연구의 6가지 역량군과 21개의 역량이 청소년상담사의 역량으로 도출되었다. 이 중 가장 필요한 역량은 상담역량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전략 및 기술, 심리검사, 상담지식, 사례관리가 청소년상담사에게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상담 외 교육 및 행정과 같은 역량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등급 및 역할에 따라 역량이 달라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청소년상담사가 보수교육 이수 이후 현업에 복귀한 후 실무에 적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 개발연구가 존재한다(소수연 외, 2016). 정리하자면, 청소년상담사는 현장에서 다양한 역량을 요구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직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와 소진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라. 요약 및 시사점

청소년상담사는 상담과 관련한 유일한 국가자격으로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자격을 관리하여 왔으며, 지난 20여 년간 3만 명이 넘는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해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상담사를 필요로 하는 현장의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청소년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인 학교와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가 상담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현장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상담사의 역할이 보호, 지원,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현장에서 요구받고 있다.

청소년상담현장에서의 요구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상담사 인력현황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임금수준의 열악함, 일자리로서의 고용 불안정, 보수교육의 역할, 상담자로서의 전문성, 취업지원에 대한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즉, 청소년상담사는 상담전문가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요구받지만,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형태(계약직, 임시직, 프리랜서 등)와 같이 고용형태가 열악한 직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진로개발과 상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취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희망하며, 수퍼비전 제공이나 적극적인 교육훈련을 희망하고 있으며, 취업과 관련한 지원이 강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더욱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상담사를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의 직무 특성상 소진과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와 역량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소진과 직무환경, 스트레스,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여 그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청소년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확대되고 있어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지원 및 역량에 따른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인력현황조사와 선행연구는 특정시기에 전체 청소년상담사 중 응답자만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 비응답자의 수요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횡단적인 수요만을 파악하고 있어 특정시기의 수요나 이슈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횡단적인 데이터로서 청소년상담사와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상담사는 상담역량 및 전문성을 목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현장의 경력에 따라 그 추이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상담사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직무와 관련한 소진,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기초데이터를 통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직무환경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의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3. 상담자 발달이론과 연구동향

가. 상담자 발달이론

상담자의 대부분은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일련의 발달단계를 거친다(Nelson & Jackson, 2003).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은 단순하게 시간적 성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역동적인 현상이다(Skovholt & Jennings, 2004). 상담자 발달이론은 상담자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상담자의 이론적 배경과 무관하게 상담자가 전문적인 상담자로 숙련

되어 가는 과정을 발달적 관점에서 보는 이론이다(금명자, 정상화, 2021). 상담자 발달이론은 상담자가 개인적, 전문적으로 발달 및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들에 따라 발달적 변화를 단계 또는 수준으로 나누어 발달단계별 특징을 기술하는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들의 내용이 상담과정의 영역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기술한다(심홍섭, 이영희, 1998; Chagnon & Russell, 1995).

상담자 발달이론에 따르면 상담에서 내담자의 변화를 끌어내 상담의 성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상담자 스스로가 잘 발달된 상태로 내담자와 상담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ane, 2016). 상담자의 전문성은 상담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상담자의 자질에 따라 같은 상담기법을 적용하여도 내담자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김계현, 1992). 상담은 다른 치료영역과 달리 치료의 구조화가 비교적 유연하고 상담자의 체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상담 관련 이론적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기본적으로 상담 실무 경험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성장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지속적인 자각과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Urofsky, 2013).

상담자 발달은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자들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동일한 수준의 발달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Luther & Barnes, 2015). 상담학이 도입된 이후 국내외에서는 지금까지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이론과 체계 그리고 상담자 발달을 위한 교육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김진숙, 2001; 최한나, 2005; Orlinsky & Ronnestad, 2015). 상담자 발달이론은 입문 상담자가 전문 상담자로 발달해 가는 과정을 일련의 단계로 가정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상담자의 특성에 관심을 가져왔다. 상담자 발달 이론과 그에 따른 발달 모델의 흐름과 초점은 점차 상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전인적 발달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담자 발달의 단계를 구분하는 차원 역시 점점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최한나, 2005). 이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담자 발달과 관련된 이론과 상담자 발달을 위한 연구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Lane, 2016; Smith & Koltz, 2015).

나. 상담자 발달모델

상담자 발달모델은 상담자의 이론적 배경과 무관하게 상담자가 전문가로 되어가는 과정을 발달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각각의 상담자 모델에서 강조하는 상담자의 발달과 그 차원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상담자 발달 모델은 다음과 같다.

1) Hogan의 상담자 발달모델

Hogan(1964)은 상담자의 발달을 의존성과 자율성, 동기, 자신감을 준거로 네 가지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상담자의 특징과 각 단계에 적합한 슈퍼바이저의 개입방법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첫 번째 단계의 상담자는 불안과 의존, 상담자로서의 통찰결여의 특성을 보인다. 상담에 대한 동기는 높으나 한정된 상담기법에 의존한다. 이 단계의 상담자는 주로 슈퍼바이저를 모방하여 학습하므로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에서 모델링, 알아차림 훈련, 해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두 번째 단계의 상담자는 과도한 자신감과 압도당하는 느낌이 교차하는 특성을 보인다. 상담이론과 기법을 상담자 개인의 가치관과 통합하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게 된다. 상담자는 여전히 슈퍼바이저에게 의존하나 상담에서 나름의 개성을 발휘하고자 노력하는 단계로 슈퍼비전도 비지시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세 번째 단계의 상담자는 상담자로서의 정체성과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이 증가한다. 전문가로서 안정적인 상담에 대한 동기를 가지며 통찰력도 향상된다. 슈퍼바이저와의 관계도 동료적인 관계로 변화하며 슈퍼비전은 직면을 통해 상담자가 전문적, 개인적으로 직면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네 번째 단계의 상담자는 자율성과 안정감, 풍부한 통찰의 특성을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슈퍼비전의 중요성은 비교적 감소하며 다른 전문 상담자들과의 자문형태의 슈퍼비전이 적절하다.

2) Stoltenberg의 상담자 발달모델

Stoltenberg(1981)는 Hogan(1964)의 모델을 확장한 상담자 복잡 모델(Counselor Complexity Model; CCM)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상담자가 발달을 통해 인지적으로 더 복잡적으로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상담자는 상담이론과 상담기법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는 네 가지 단계의 발달을 거친다. 각 단계마다 인지 구조적 특성,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대인지각, 정서상태가 달리 나타난다. 이 모델은 Hogan(1964)의 상담자 발달 모델에서 제시한 단계별 상담자의 특성을 대부분 수용하여 특히 슈퍼비전을 통해 어떻게 상담자의 발달과 성장을 최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술하였다.

3) Loganbill, Hardy와 Delworth의 상담자 발달모델

Loganbill 등(1982)의 상담자 발달 모델은 상담자가 자신을 보는 관점과 세상을 보는 관점, 슈퍼바이저를 보는 관점에 따라 상담자 인지 과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상담자의 인지 과정의 특성에 따라 발달단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정체기로서 이 단계의 상담자는 자신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며 세상을 보는 관점이 좁고, 경직되어 있다.

인지 과정은 이분법적이고 문제해결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슈퍼바이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두 번째 단계는 혼돈기로 이 단계의 상담자는 불안정과 혼란, 갈등을 경험한다. 정체기와 달리 자각은 가능하나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곤란함을 겪는다. 상담이 잘될 때는 자신감이 높아지나 상담이 잘되지 않을 때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다. 이 단계의 상담자들은 유용한 상담기법을 알고 있으나 상담 장면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혼돈을 겪는다. 슈퍼바이저에게 의존하나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통합기로 이 단계의 상담자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넓어지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현실적이고 확고한 견해를 갖게 된다. 또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수용하고 슈퍼바이저에 대한 시각도 달라진다. 슈퍼비전 과정에서도 상담자로서의 책임지고자 하며 최대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취한다. 앞서 세 가지 단계에 더하여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한 여덟 가지의 주제를 추가하였다. 여덟 가지 주제는 정서 자각, 정체성, 자율성, 개인차이의 존중, 상담 기술의 숙련도, 상담목표와 동기 상담 윤리를 포함한다. 상담자의 발달 수준은 단계적으로 발달하지만 여덟 가지 주제는 모든 상담자가 동일한 수준으로 발달하지 않고 순화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보았다.

4) Skovholt와 Ronnestad의 상담자 발달모델

Skovholt 등(1992)의 상담자 발달 모델은 상담의 전문성은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서와 관계 능력의 통합적인 발달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상담자의 발달과정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로 상담자의 개인적 자아와 전문적 자아가 통합되어 전문적인 개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보았다. 이 모델은 상담자의 발달 단계를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여덟 가지로 구분하였다. 여덟 가지 단계는 관습적 단계, 전문적 훈련으로의 이행 단계, 대가 모방 단계, 조건적 자율성의 단계, 탐구의 단계, 통합의 단계, 개별화의 단계, 완전화의 단계로 구분된다. 슈퍼바이저는 각 단계에 따라 상담자의 전문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담자가 경험하는 구조적 변화에 중점을 둔다. 이 모델에서는 상담자의 자기성찰을 통한 구조적 발달을 위한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5) 김계현의 상담자 발달모델

김계현(1992)은 국외의 대표적인 상담자 모델을 국내에 소개하고 한국 상담자들을 질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상담자 발달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상담자 발달 이론에 Acker와 Hollay(1986)을 수정 및 결합시켰다. 이 모델은 상담자 교육발달 단계 모델로 명명하였으며 발달 단계를 실습 준비기, 실습 수련기, 자기 수련기의 세 가지 단계로 구

분하였다. 실습 수련기는 다시 초급, 중급, 고급기로 세분된다. 또한 이 모델에서는 교육내용을 알아차림, 상담대화기술, 진단 및 처치, 전문성, 평가로 구분하였다. 김계현의 상담자 교육 발달 단계모델은 상담자들의 발달적 특징이나 발달 수준을 구별하는 것보다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다. 상담자 발달 관련 변인

국내에서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상담자의 발달수준과 관련된 변인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명자, 정상화(2021)의 국내 상담자 발달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상담자 발달 수준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들이 다른 변인들을 인지, 정서, 관계를 포함하는 개인적 요소와 윤리, 수퍼비전을 포함하는 상담자의 상담 실제 요소로 구분하였다. 인지영역에는 먼저, 사례개념화 관련 연구가 존재한다(오효정, 오은경, 김봉환, 2012; 이윤주, 김계현, 2002). 정서영역에는 역전이 관리능력 및 활용(김준혜, 안현의 2013; 이상리, 최윤미, 신호정, 2016), 소진(김보나, 임나영, 2018; 윤성휘, 홍지영, 2017; 현민홍, 홍혜영, 2018),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관리(김광웅, 최명선, 김현주, 2004), 자기효능감(이수현, 서영석, 김동민, 2007) 등의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관계영역에는 내담자와의 작업동맹(김현주, 이영애, 2007; 조민경, 장유진, 2018)과 수퍼비전 작업동맹(손은정, 2019)에 관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수퍼비전 및 교육영역에는 수퍼비전 만족도(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수퍼비전 경험(김정희, 하정희, 2020) 등의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끝으로 상담실제 영역에는 상담 만족도(최정호, 한영주, 2015)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문주, 조한익(2016)의 상담자 발달과 관련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및 상관관계 메타 분석에 대한 연구에서는 상담자 발달요인과 관련 요인의 분석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먼저, 상담자 발달요인은 사례이해, 상담계획, 알아차리기, 상담대화기술, 인간적·윤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구성범주는 상담자 요인,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상담관련 교육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상담자 요인에는 연령, 경력, 학력, 상담자 정서, 상담자 성숙도 역량이 하위요인으로 포함된다. 상담자 정서에는 회피, 불안, 안정과 그 상위영역인 스트레스, 소진, 애착이 포함된다. 상담자 성숙도 역량에는 자기대화, 성찰일지와 그 상위영역인 자기성찰과 마음챙김, 내담자 이해, 자기통합, 자기통찰, 불안 및 역전이 관리능력과 그 상위영역인 역전이 활용이 포함된다. 또한 자아탄력성, 상담자 소진 회복 탄력성과 그 상위영역인 탄력성이 포함되며 별도로 적응유연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요인에는 상

담성과 및 기대, 작업동맹(치료적 협력)이 포함된다. 끝으로 상담관련 교육 요인에는 수퍼비전과 교육실태, 교육만족과 그 상위영역인 교육 및 정신분석과 교육요구가 포함된다.

라. 상담자 발달 연구동향

국외에서는 Fleming(1953)과 Hogan(1964)이 상담자 전문성의 발달 단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한 이후 상담자 발달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상담자 발달 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상담자의 성장과 관련하여 상담자 발달단계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나 발달은 비연속적이며 누구나 발달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선행연구가 존재한다(Skovholt & Ronnestad, 1992). 특히, 초심상담자를 대상의 상담자 교육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초심상담자들이 동일한 상담교육을 받더라도 모두가 동일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Howard, Inman, & Altman, 2006). 이처럼 동일한 수련이나 교육을 받더라도 발달 수준과 성과는 다를 수 있다는 상담자 발달 관련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상담자 발달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외에 상담자 교육 및 수련과 관련하여 상담자의 내적 성찰과 관련한 자기효능감,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Lent, Hill, & Hoffman, 2003). 이는 상담에 있어 가장 훌륭한 도구는 상담자임을 강조한다(Ieva, Ohrt, Swank, & Young, 2009). 이외에도 상담자들을 성장시키고 발달시킨 계기가 되는 결정적 사건에 대한 선행연구가 존재한다(Furr & Carroll, 20003). 이처럼 국외의 연구는 대다수의 상담자에게 있어 일정한 수준의 수련과 교육경험은 그들의 발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와 함께 수련과 교육경험을 한 모든 상담자의 발달수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주를 이루고 있다(Morrisette & Gadbois, 2006; Woodside et al., 2007).

국내에서도 상담학 도입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상담자 발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김계현(1992)이 처음으로 상담자 발달 단계와 교육 및 수퍼비전의 내용을 제시하였고 발달단계를 실습 준비기, 실습수련기, 자기수련기로 구분하였다. 이와 더불어 심홍섭(1998)은 상담자의 발달단계를 평가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의 전문적인 교육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육모델이 개발되었고, 상담자 발달의 평가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이 밖에도 1990년대에는 상담자의 수퍼비전 및 교육 요구에 대한 연구(문수정, 1998), 상담자 교육을 위한 인지기술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류진혜, 1999)가 존재한다.

2000년대에도 상담자 발달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되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상담자 경력과 수퍼비전, 상담자 발달 수준과 상담자 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김계현, 문수정, 2000; 유성경, 이문희, 조은향, 2010; 이미선, 권경인, 2009; 장안덕, 이영순, 천성문, 2009). 최한나(2005)는 상담자 발달 연구의 동향을 제시하였는데, 상담자 발달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지적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인지적 영역을 주로 다루었으며, 상담자 발달 수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상담자 발달 수준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고, 더불어 그 영역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금명자, 정상화, 2021). 금명자, 정상화(2021)의 국내 상담자 발달 연구에 따르면, 최근에는 상담자 발달수준 차이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담자 발달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상 및 분야에 대한 상담자 발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담자 발달 관련 연구는 각 연구마다 상담자 발달단계를 구분하는 정의와 기준이 다르고 대부분 자기보고식 측정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계에 대한 특징적 준거가 부재한 상태로 양적인 정보만으로 상담자의 발달단계를 초보와 숙련 또는 초보, 중간, 숙련 등으로 구분하고 그 차이를 확인하고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정문주, 조한익, 2016). 한편 국내의 상담자 발달연구는 주로 횡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횡단적 연구방법은 상담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금명자, 정상화, 2021).

마. 요약 및 시사점

상담자가 전문성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달단계를 가지며, 전문적인 상담자로 성장하는 과정과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기술하거나 준거를 제시하는 것이 상담자발달이론이다.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상담현장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행정, 지역사회 자원 연계, 위기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 발달이론에 접목하여 청소년상담사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발달과 상담성과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상담자 발달이론과 발달모델 그리고 상담자 발달 관련 변인과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상담자 발달과 같이 청소년상담사도 그 전문성과 발달수준이 상담자마다 상이한 성장과 발달을 보이며 개별 수준이 다양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은 상담사의 개인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상담 직무 등 다양한 환경에 역동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청소년상담사의 상담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상담현장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청소년상담사의 발달과정을 추적하는 기초데이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내적요인, 외적요인, 환경적 요인, 전문성과 역량, 소진과 대리외상, 직무특성 등 다양한 변인이 상담자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상담사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청소년상담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실효성 있는 변인을 도출하여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를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상담사 발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를 확보하여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상담현장의 변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경력단계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과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과정과 같은 교육과정의 체계적 개편, 청소년상담사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모형개발, 청소년상담사의 경력 및 직무에 따른 소진예방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 방안, 청소년상담사 직무 및 소속분야에 따른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등 보다 일회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 패널조사 모형 개발을 위하여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외 유사 패널조사 및 청소년상담사 발달에 대한 연구를 탐색하였다. 조사영역 구체화를 위해 청소년상담사 현장 종사자 대상 인터뷰 및 학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사영역 및 측정도구를 구체화하였고, 패널조사 설계와 실제 조사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최종 패널조사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추진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가. 패널조사 기획 방향 수립 및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을 위해 청소년상담사의 급수별 역할, 실태 및 청소년상담사인력현황조사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상담사 발달 이론을 토대로 청소년상담사가 전문가로 되어가는 발달적 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청소년상담사 대상 조사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보다 세부적으로 청소년상담사가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패널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상담사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및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조사 항목을 구성하였다. 1차 안으로 작성된 조사 항목에 대해 청소년상담 분야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 항목에 대한 자문을 통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 항목을 최종 선정하였다.

나. 표본설계

기존 중단 연구 사례 및 유사 패널조사 방법 및 내용 등을 검토하였고, 청소년상담사 주요 채용기관 및 급수별 양성인원 등 모집단 분석을 통해 표본규모 및 표본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중단연구와 관련 패널조사 연수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표본규모 및 표본추출방법에 대한 기본 틀을 확정하였다.

다. 예비조사 실시 및 평가

조사항목별 측정도구 및 문항에 대해 청소년상담 분야 학계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최종 예비조사 문항을 확정하였다. 예비조사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해 보수교육을 수강하는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으며, 문항 가독성, 문항 수 및 조사 답례품에 대한 기타의견을 수집하였다. 해당 의견을 반영해 최종 설문 문항을 확정하였고, 향후 패널조사를 위한 패널조사 모형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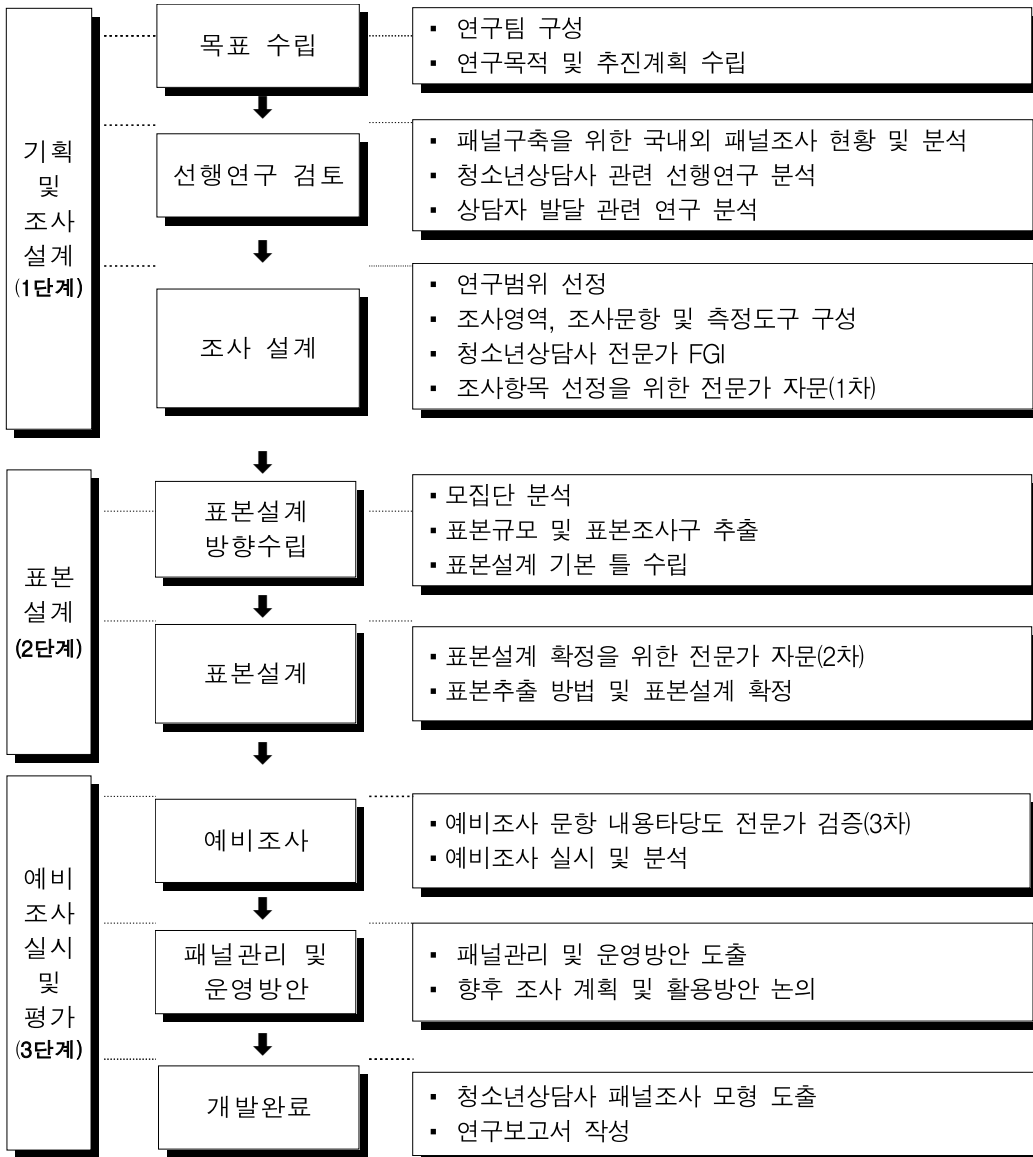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추진 절차

IV. 연구 결과

1. 조사 설계

가. 조사영역 및 변인

1) 상담사 발달과 관련한 선행연구 분석 (1차)

본 연구에서는 상담사 발달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방대한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사 발달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동향을 분석하거나 메타분석으로 기존 연구를 재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관련 변인을 도출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배연옥, 조성호(2009)는 상담사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상담사 발달, 상담사 성숙도, 상담 경력에 대한 변인과 하위변인을 정리하였다. 정문주, 조한익(2016)은 상담사 발달과 관련한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동시에 메타분석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변인을 상담사 개인변인과 교육, 상담실제로 구분하여 변인과 그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최현국(2020)은 상담사 전문성 발달과 상담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자기성찰, 수퍼비전 경험, 기술적 발달, 의도된 집중적 훈련, 전문성발달, 전문성 요소로 구분하고 전문성 요소는 그 하위변인을 세분화하였다. 금명자, 정상화(2021)는 상담사발달에 대한 국내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인지영역, 정서영역, 관계영역, 윤리영역, 수퍼비전·교육, 기타로 변인을 구분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하위변인을 정리하였다.

표 1. 청소년상담사 발달과 관련한 1차 변인

연구	변인	하위변인
배연옥, 조성호 (2009)	상담사 발달	사례이해, 알아차리기, 상담계획, 상담대화기술, 인간적 태도
	상담자성숙도	자기영역, 관계영역
	상담경력	상담경력 개월 수, 상담사례 수, 수퍼비전 경험, 상담관련 자격, 학위,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경험

연구	변인	하위변인
정문주, 조한익 (2016)	상담자개인변인	역전이 활용, 마음챙김, 기타, 적응유연성, 자기위로능력
	교육	교육내용만족, 교육내용실태, 교육내용요구
	상담실제	상담기대, 상담성과, 작업동맹
최현국 (2020)	자기성찰	-
	수퍼비전경험	-
	기술적 발달	-
	의도된 집중적 훈련	-
	전문성 발달	-
	전문성요소	지식, 경험, 문제해결, 직관, 창의성, 기타
금명자, 정상화 (2021)	인지영역	사례개념화, 가설형성, 자기대화, 지혜, 인지적 지혜, 내담자 강점 및 활용,
	정서영역	어려움과 극복방안, 애착, 공감정확도, 공감능력, 공감유형 및 성향, 역전이 관리능력·활용, 포커싱적 태도, 어려움 극복방안, 대리외상, 동성애 혐오반응, 성격 5요인특성, 소진, 자기위로능력, 원가족건강성·경험, 자기자비, 자아탄력성·스트레스 관리, 자기효능감, 마음챙김,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적 유대, 부정경험, 좌절극복경험
	관계영역	내담자와의 작업동맹, 즉시성, 언어반응, 수퍼비전 작업동맹
	윤리영역	윤리적 갈등 개념화, 상담자의 윤리적 문제 및 비윤리적 행동, 집단상담 윤리의식
	수퍼비전, 교육	수퍼비전 교육요구, 수퍼비전 만족도, 수퍼비전 경험, 교육, 수퍼비전·교육분석 경험
	상담실제	상담만족도, 상담성과
	기타	역할, 역량, 사회정의 옹호역량, 단기상담훈련프로그램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진 논의를 통해 상담자 발달과 관련하여 관련성 높은 변인을 8가지로 정리하였다. 정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청소년상담사 발달과 관련한 2차 변인 및 척도 정리

연번	변인	정의	척도 개발자	변안자	척도명	문항수
1	상담자 발달	상담자의 실제적 전문성 발달 수준 측정	심홍섭 (1998)	-	상담자발달수준 척도(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naire: KCLQ)	50
2	역전이 관리능력 및 활용	상담자의 역전이 내용과 관리능력의 정도 측정	Van Wagoner et al., (1991)	장세미 (1999)	역전이 관리능력척도(Countertransference Factors Inventory: CFI)	50
3	대리외상	상담자의 대리외상 측정	남희경 (2016)	-	상담자 대리외상척도	28
4	상담자 소진	상담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자 소진 측정	LEE 외(2007)	Yu 외 (2007)	상담자소진 척도(Korean Counselor Burnout Inventory: K-CBI)	20
5	자기탄력성	자기탄력성 측정	Klohnem (1996)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	29
6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대처 정도 측정	Lazarus & Folkman (1984)	김정희 (1987), 박주영 (1995)	스트레스 대처	24
7	자기효능감	상담자 효능감 측정	Lent et al.,(2003)	이수현, 서영석, 김동민 (2007)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CASES)	40
8	수퍼비전	수퍼바이저의 개인적 반응 측정	Holloway & Wampold (1984)	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수퍼바이저의 개인적 반응 척도-개정판(Trainee Persona Reaction Scale-Recised: TPRS)	12

나. 청소년상담현장 종사자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 패널 구축을 위해 청소년상담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 영역 및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탐색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1) 연구참여자

FGI의 참여자 모집에 있어서는 어떠한 참여자에서 표본을 선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Morgan, 1998). 연구주제에 대한 심층적 토의로 관련 내용의 통찰을 얻기 위해 생산적인 토의가 가능한 참여자를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변인과 조사방법 및 패널조사 구축의 실효성을 알아보기와 이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구체적 선정기준은 1) 청소년상담사 자격취득자, 2) 청소년상담현장 종사자로, 최종 10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화상으로 진행하였고 인터뷰 몰입도를 높이고자 상담경력 및 자격증을 고려해 ‘숙련상담자 그룹’, ‘실무상담자 그룹’, ‘초보상담자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인터뷰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인적사항

연번	그룹	성별	연령	소속	직위	학위	상담경력 (년월)	청소년 상담사	상담관련자격증
1A	그룹1 (숙련 상담자)	여	52	초등학교	전문상담사	박사수 료	11.0	2급	전문상담사 1급 사회복지사1급 청소년지도사 1급
1B		여	53	A청소년상 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	박사	10.0	1급	임상심리사 1급
1C		여		중학교 Wee클래스	교사	박사	20.0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초중등교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3급
2D	그룹2 (실무 상담자)	여	30	B청소년상 담복지센터	주임	석사	6.0	3급	-
2E		여	47	고등학교	전문상담사	석사	7.0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초중등교사 2급
2F		여	30	교육지원청	전문상담교사	박사 재학	5.0	3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2G		남	36	E청소년상 담복지센터	전일제 청소년동반자	석사	7.4	3급	-

연번	그룹	성별	연령	소속	직위	학위	상담경력 (년월)	청소년 상담사	상담관련자격증
3H	그룹3 (초급 상담자)	여	36	F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학교 상담복지사	석사	1.0	2급	임상심리사 2급
3I		여	34	사설상담센터	전문상담사	석사	1.0	2급	사회복지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3J		여	35	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석사	2.3	2급	전문상담교사 1급 초중등교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에 대한 의견을 얻고자 반구조화 형태의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연구자의 편견이나 기대를 확인하는 질문을 배제하고 연구참여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질문지 구성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지

연구주제	질문내용
조사영역 (변인)	1. 청소년상담사의 상담자발달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변인인가? 2. 청소년상담사의 상담자발달을 파악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변인은 무엇인가? 3. 추가로 포함해야 할 변인은 무엇인가?
조사방법	1. 조사방법 2. 조사문항 수 3. 조사기간·횟수 4. 패널 관리를 위한 참여자 독려·보상
패널조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안	1.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에 대해 기대하는 점은? 2. 청소년상담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 고려할 점은?

FGI는 면접참여자 그룹 내 역동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주제를 논의하는데 적절한 자료수집 방법이며 질적 연구분석 방법으로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Rodenhauser, Chauvin & Szekely, 1998).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듯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

로 한 패널조사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자료분석은 질적연구의 속성인 변수를 개방하여 원자료로부터 떠오르는 하위 영역을 범주화하고 주제를 발견하고 이론을 구축하는데 적절한 것으로(Saldana, 2021)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사료된다.

인터뷰참여자들에게는 연구의 주제와 목적,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활용한 인터뷰 방법과 날짜를 미리 이메일과 SNS로 전송하여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3~5일 전 질문지와 청소년상담사 발달과 관련한 2차 변인 및 척도 정리한 내용을 전달하여 토론 주제와 관련된 개인의 생각을 미리 정리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4월 한 달간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집단별로 1시간~1시간 반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하여 연구 질문에 얽매이지 않고 진행하였다.

(2) 분석방법

면접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여 상담심리 전공자가 1차로 정리하고, 면접 주진행자와 공동연구자 3인이 녹취록을 읽어가며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코딩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질적연구의 속성인 변수를 개방하여 원자료로부터 떠오르는 하위 주제를 범주화하고 주제를 발견하고 이론을 구축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사료된다. 연구진은 완성된 녹취록을 질적자료 분석 프로그램 MAXQDA 2020을 사용하여 요인을 유목화하여 도출하였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상담사의 상담자 발달 요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임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수집된 음성파일과 전사본은 연구종료 후 폐기됨을 안내하였다. 연구진은 개인의 의견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알파벳으로 대체하여 기록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3) 분석 결과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의 범주(조사영역, 패널조사방법, 패널조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안), 9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3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청소년상담현장 종사자 FGI 분석 결과

범주	하위범주	개념
조사영역 (변인)	조사영역의 적절성	① 적절한 변인 ② 문항 수 조절 필요 ③ 매개·조절변인 부족
	조사에 포함했으면 하는 영역	① 직업적 소명·가치관 ② 직무만족 ③ 전문성 발달을 위한 소속기관의 복지 또는 개인적 투자 ④ 수퍼비전 경험 및 여건 ⑤ 동료 및 수퍼바이저의 존재 ⑥ 근무조건 ⑦ 입직(취업)까지 걸린 시간 ⑧ 주요이용고객
패널조사 방법	초보/실무/숙련상담자 기준	① 실무경력기간 ② 사례 수 ③ 자격증 ④ 자격증+실무경력 ⑤ 자격증+실무경력+사례 수
	조사방법	① 온라인 조사 ② 지면 조사 ③ 문항 수·소요시간
	조사참여에 대한 보상	① 온라인 쿠폰 보상 ② 교육기회 제공
	패널유지 전략	① 연구진행사항 및 조사참여 의미 전달 ② 데이터 개방 ③ 개인정보 이용·보유 안내
	조사주기	① 3년 간격 ② 5년 간격 ③ 2년 간격
패널조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안	기대효과	① 청소년상담사 실태에 대한 자료 확보 ② 사회적 인식 및 처우개선 근거 마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	① 직업·직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②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마련

(1) 조사영역

연구진이 선정한 조사영역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조사에 포함했으면 하는 영역 총 2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① 조사영역의 적절성

연구진이 선정한 조사영역(변인)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유사한 변인은 삭제해 문항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상담자 개인 내적변인에 치중해 있어 상담자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상담자 소진과 스트레스 관리 이런 부분들이 대외외상 이런 부분들이 관심 많이 가더라고요 그 부분이 관리가 잘 되어야지 오랫동안 상담을 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역전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상담자 2E: 적절한 변인)

“자기 효능감을 봤는데 네 사실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자기 탄력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중략) 6번 자기 탄력성에서 자신감 항목이 있잖아요 자신감이라고 하면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 나눠서 또 명료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같이 묶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

(상담자1A: 문항 수 조절 필요)

“상담자가 실제 이런 영향들을 받고, 이런 소진이 일어났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 탄력성을 자기 효능감을 갖고 극복했다는데 그 중간이 이제 빈 느낌이에요 (중략) 그러면 어떻게 소진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요소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담자1C: 매개 및 조절변인의 부족)

② 조사에 포함했으면 하는 영역

인터뷰 참여자들은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 소속기관의 근무조건 및 복지, 구체적인 직무와 직무수행을 통해 얻는 소명, 상담자로서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자원이 갖춰져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사실 저희가 이 필드에서 엄청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소명의식으로 좀 더 일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나를 좀 더 성장시키고 많이 배울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좀 들어가면 저도 좋겠다.” (상담자 2D : 직업적 소명)

“직업 만족도? 이게 상담자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청소년 상담사에서 직업을 받았는데 이게 부족해서 내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지 아니면 내가 더 이것 때문에 내가 좋다든지” (상담자1B : 직무만족)

“상근직으로 일하는지 파트인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인턴이나 무보수로 일하고 계신 수련생의 입장에서 상담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페이를 받으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sns나 이런 블로그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개별 신청 받아서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상담 세팅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냐에 따라서, 근무 형태나 상담 세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상담자3J : 근무조건)

“수퍼비전을 실제 이 상담사(청소년상담사) 전체가 갖고(받고)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수퍼비전 받고 나서의 어떤 성과, 이런 부분이 드러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상담자1C : 수퍼비전 경험 및 여건)

“동료 상담사들과 혹은 지도자 수퍼바이저와 사례 논의를 하지 않으면 정말 상담을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라는 곳은.” (상담자2G : 동료 및 수퍼바이저 존재)

“상담 교사들은 교육청에 등록하기 위한 안전, 보전, 성매매...이런 연수들을 다 따로따로 연간 120시간씩 챙기고 그것과 관련 없이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와 경제적 부담을 지면서, 평일에는 참석이 어렵다보니, 수퍼비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담 교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본인이 자기 수련이나 연차를 위해서 어떤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굉장히 방어적으로 수퍼비전 항목을 답할 것 같아요.” (상담자3J : 전문성 발달을 위한 소속기관의 복지 및 개인적 투자)

(2) 패널 조사방법

패널 설계 및 조사 시 고려할 부분으로 ‘초보상담사’, ‘실무상담사’, ‘숙련상담사’의 구분기준, 적절한 조사방법, 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 패널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조사주기 5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① 초보·실무·숙련상담자의 기준

청소년상담자 발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초보상담자’, ‘실무상담자’, ‘숙련상담

자' 로 구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구분 기준에 대해 참여자마다 의견이 상이하였으나 대체로 '자격증', '경력', '사례 수'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전문성 유지를 위해 수퍼비전을 지속하는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격증도 중요하긴 한데, 예를 들면 학회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상담 학회 자격증 2급만 있어도 만족하시고 1급은 그렇게 크게 욕심 안 부리시고 경력만 계속 쌓으시는 분도 있고, (중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파트 타임 상담자의 경우에는 사례가 별로 없어서 1년 동안 상담을 했는데 어떤 상담자는 1년에 한 60케이스씩하고, 어떤 상담자는 만약에 20케이스밖에 못했을 경우에 이게 경력 년 수로만 따지면 초보상담자, 숙련 상담자 나누는 데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이게 세 개 중에 자격증이랑 경력이랑 사례랑 조금 적절하게 맞추는 지점을 좀 찾아야하지 않을까요?” (상담자3: 자격증+실무경력+사례 수)

“자격증 개수를 물어보는 질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심리상담 분야는 민간 자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격증취득에 개인이 들이는 노력이나 요구하는 지식수준이나 이런 게 매우 많이 달라서 단순히 개수를 묻는 것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수보다는 상위 급수, 교육이나 수퍼비전이나, 사례 수나 이런 것들을 좀 다 네 중요하게 보셨다고 보면 좋겠네요.” (상담자3: 자격증+실무경력+사례 수)

“중요한 게 몇 년을 하더라도 뭘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 수, 내담자 수 사례 수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퍼비전을 어떤 식으로 내가 지속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자1B: 자격증+실무경력+사례 수)

② 조사방법 및 문항 수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 온라인 조사가 적절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문항 수가 많은 경우 성실한 참여와 수검시간을 고려해 지면조사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작업할 때나 데이터 할 때 들릴 때는 사실 온라인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그런 조사 기관들도 있잖아요.” (상담자1A: 온라인 조사)

“상담복지센터나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면으로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표본이 조금 오염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살짝 들었어가지고, 공문으로 협조를 내려주시면…….” (상담자2D: 지면 조사)

“문항수는 어 적절할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거면 아

무래도 그래도 문항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좀 조사하는데 좀 상세하게 조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300문항이 넘어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상담자3I: 문항 수)

③ 조사참여자 보상

패널구축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보상으로, 온라인 쿠폰을 희망하는 답변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 쿠폰 외에 보수교육 혜택에 대한 답변도 제시되었다.

“기프트콘이 사실 좀 제일 무난한 것 같고 커피가 커피 기프트콘이면 금액권을 준다면 좀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자2F: 온라인 쿠폰 보상)

“언제든지 원할 때 그냥 구입해서 들고 리마인드하고 적용할 수 있고 하는 거를 상시 오픈 이렇게 상시 구입!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상담자들한테 내가 뭔가 막혔을 때 여기 가서 한번 내가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면 굉장히 활용도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자1B: 교육기회 제공)

④ 패널유지 전략 및 조사주기

패널조사 시 탈락률을 최소화하고 연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전략으로 연구진행 사항 및 조사 참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제시되었다. 그 외 패널 데이터 개방,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패널 조사 간격 및 횟수는 3년 주기로 3~4회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 연구가 우리들의 이런 시간을 할애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걸 계속 공유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많은 동기 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상담자3I: 연구진행사항 및 조사참여 의미 전달)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오픈해 주신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기관에 공문으로 배포해 주신다면 모형 연구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상담자2E: 데이터 개방)

“개입을 할 때 워크넷에 들어가면 청소년 20분, 15분, 30분짜리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동기가 많이 떨어져서 상담에서 얘기를 잘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제가 링크로 공유해서 그 친구가 들어가면 이메일 주소를 또 제 것을 넣어주면 제 메일로 결과가 들어와요.” (상담자H: 온라인 심리검사 가능 정보 활용)

“아무래도 샘플링 선정할 때 아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모집단이 모집단을 표본이 잘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참여할 때 프라이버시나 개인 정보가 잘 보호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혹시 그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상담자3: 온라인 심리검사 가능 정보 활용)

“조사 대상 추적은 저는 사실 5년은 너무 길어져버려서 드랍률이 좀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년이 적절할 것 같고, 교사 같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10년 이상으로 개인 센터가 아닌 이상이야 그렇게 오래 재직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10년이나 12년 정도 주기 그러니까 3번이나 4번 정도로 끊어가는 것이 어떻까라고 생각했고요.” (상담자3: 3년 간격)

(3) 패널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안

패널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인터뷰한 결과, 조사를 통한 기대효과 및 조사결과가 실효성 있게 활용되기 위한 제안 2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① 기대효과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 패널조사를 통해 청소년상담사의 실태와 직업적 처우개선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보고하였다.

“실태 파악에서 중점을 두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청소년 상담사 하시는 분 중에 저희처럼 학교에 있는 분들 외 바깥에서,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저는 되게 존경합니다. 그분들의 고충이나 처우 개선 이런 문제... 직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처우나, 직무의 난이도나,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상담자1C: 청소년상담사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청소년상담사를 위해서 어떤 예산이 들고 그에 맞는 인력이 충원이 되고 그런 거기에 걸맞는 이제 인력의 질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이제 필요할 거잖아요 (중략) 청소년상담사를 가지고 취직을 했을 경우 처우와 근무 형태 등을 같이 조사를 해서 기관의 근무 연수나 직무 만족도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이런 요인이 상담효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상담자3H: 사회적 인식 및 처우개선 근거 마련)

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

조사결과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으로 ‘직업·직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과정·수련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다수 제시되었다.

“청소년 상담이라는 것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통일된 기준안이 마련되는 데 기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자3J : 직업 및 직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사를 통해서)자격증 관련해서도 공부내용이라든지 어떤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을 것도 같고 (중략) 청소년상담사가 좀 2급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 가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훈련이라든지 관리 부분이 좀 학회 자격증처럼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가 자격증 상담 국가 자격증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상담자3H : 교육과정 및 수련 가이드라인)

다. 조사항목 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1차)

청소년상담현장 종사자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상담사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발달양상을 살펴보았다.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제적인 상담조력기술, 대리외상, 탄력성 등과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취득자격, 전공과 같은 개인적 특성, 근무환경 및 주요 직무와 같은 맥락적 환경 또한 조사에서 고려할 변수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개인적 특성 및 맥락적 환경과 관련된 요인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개인적·맥락적 요인

대영역	소영역	요인
인적 사항	기본 인적사항	① 성별 ② 연령(출생년도) ③ 소속기관 ④ 근무형태(예. 비정규직, 정규직) ⑤ 월 평균 소득
개인 특성	기본 개인 특성	① 학력(최종취득학위) ② 전공 ③ 자격취득년도 및 급수 ④ 기타 취득 자격증 ⑤ 자격증 취득기간
	경력 특성	① 총 상담경력·상담케이스 ② 현 소속기관 근무기간 ③ 현 소속기관 기준 직책(역할) ④ 현 소속기관 기준 주요직무 ⑤ 수행할 수 있는 직무 ⑥ 전문성 계발을 위한 외부활동(예. 스터디, 학회 등)

대영역	소영역	요인
맥락적 환경	소속기관	① 직무만족도 ② 직무스트레스·소진 ③ 전문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자원 ④ 전문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 ⑤ 이직의도
	소속기관 외	① 청소년상담분야 보수 및 처우 ② 슈퍼비전 등 전문성 개발 경험 ③ 청소년상담분야 정책(예. 예산, 사업 등) ④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

선행연구 및 현장 종사자 인터뷰를 종합하여 측정도구를 연구진이 일차적으로 선정하였고, 조사 영역 및 측정 도구가 연구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해 청소년상담 분야 교수 4명과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하였다. 자문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패널조사 항목 및 측정도구(1차)

연번	변인	정의	척도명	척도 개발	번안자	문항 수	자문 결과
1	상담자 발달	상담자의 실제적 전문성 발달 수준 측정	상담자발달수준 척도(Korean Counselor Level Questionnaire: KCLQ)	심홍섭 (1998)	-	50	적합
2	역전이 관리능력 및 활용	상담자의 역전이 내용과 관리능력의 정도 측정	역전이 관리능력척도(Countertransference Factors Inventory: CFI)	Van Wagone et al., (1991)	장세미 (1999)	50	부적합
3	대리외상	상담자의 대리외상 측정	상담자 대리외상척도	남희경 (2016)	-	28	적합
4	상담자 소진	상담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자 소진 측정	상담자소진 척도(Korean Counselor Burnout Inventory: K-CBI)	LEE 외(2007)	Yu 외 (2007)	20	적합
5	자기탄력성	자기탄력성 측정	자아탄력성	Klohnem (1996)	박현진 (1996)	29	부적합
6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대처 정도 측정	스트레스 대처	Lazarus & Folkman (1984)	김정희 (1987), 박주영 (1995)	24	부적합
7	자기효능감	상담자 효능감 측정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CASES)	Lent et al.,(2003)	이수현, 서영석, 김동민 (2007)	40	적합

연번	변인	정의	척도명	척도 개발	변안자	문항 수	자문 결과
8	수퍼비전	수퍼바이저의 개인적 반응 측정	수퍼바이저의 개인적 반응 척도-개정판(Trainee Persona Reaction Scale-Recised: TPRS)	Holloway & Wampold (1984)	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12	적합
9	상담자 직무요구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 측정	직무요구-자원 척도	정미연 (2019)	-	42	적합
총 10개 변인						295	

자문 결과 총 9가지 측정도구 중 3가지 도구는 상담자 발달을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연구조사에서 청소년상담사의 고유한 상담자 발달단계와 필요 역량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해당 척도가 청소년상담사보다 심리상담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항이 실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연구방법과 관련해 이직률이 높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패널 유실 문제, 동일 급수 내에서도 실무경력 등 개인 요인에 따라 상담자 발달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문결과를 반영해 ‘역전이 관리능력 및 활용’, ‘자기탄력성’, ‘스트레스 관리’ 척도를 제외하였고, 상담자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상담자 정체성’ 척도, 상담 외 조직에서 다양한 직무가 요구되는 청소년상담사 특성을 고려한 ‘직무 스트레스’ 척도를 추가하여 1차 조사 항목을 구성하였다.

2. 표본 설계

본 장에서는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를 구축함에 있어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제반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조사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규모의 표본 크기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조사가 일회성 조사가 아닌 패널조사로 진행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패널조사 운영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패널조사와 관련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패널조사 설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위해 패널조사 경험이 많으며, 패널조사를 운영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담당 연구원 4명을 대상으로 예상 패널유지율 등을 비롯한 표본설계안의 적절성 및 개선 방안과 패널조사 수행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서면 자문을 실시하였고, 의견을 토대로 당초 계획한 패널조사 설계안을 수정·보완하였다.

가. 조사 목적

상담자의 발달 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개인적인 맥락과 더불어 상담자로서의 전문적인 맥락에서 발달 및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중심으로 발달적 변화를 몇 개의 단계 또는 수준으로 나누어 각 단계의 특징을 기술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상담자 발달 연구에서는 상담경험, 교육경험, 수퍼비전 경험, 자격증 등을 중심으로 상담자의 발달 단계를 구분하여 왔으며, 일반적으로 초보상담자와 전문상담자의 두 단계로 구분하거나 초보상담자, 중간상담자, 숙련상담자의 세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금명자, 정상화, 2021). 이러한 상담자의 발달단계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상담자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상담자에게는 발달 단계상 자신의 현재 위치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무엇을 더 발달시켜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상담사들이 상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차원은 물론 전문적인 차원에서의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담자 개인으로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성과나 어려움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상담사로서의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다.

상담자들이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요 발달 단계별로 대상을 표집하여 일회성의 횡단조사라도 일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횡단조사는 일정 시점에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상담자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횡단조사가 아닌 패널조사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조사 대상

1) 목표모집단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패널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 조사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에 종사하는 상담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청소년상담사들이 각 발달 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상담사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조사의 대상을 단순히 청소년 대상 상담에 종사하는 상담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상담사로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패널조사는 청소년상담사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담자 발달의 관점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담자 발달을 초기상담자, 중간상담자, 숙련상담자의 3단계로 구분할 경우 숙련 단계에 도달한 상담자보다는 초기 또는 중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발달을 경험하는 상담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패널조사의 조사 대상은 국가자격증으로서의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가운데 초기 또는 중간 단계의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상담사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조사 모집단

2022년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운영결과 보고에 따르면 2022년까지 총 21회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이 있었으며, 청소년상담사 1급 1,194명, 2급 13,076명, 3급 19,540명으로 총 30,313명의 청소년상담사가 배출되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2).

표 8. 급수별 청소년상담사 현황

구분	1급	2급	3급	계
계	1,194명	13,076명	19,540명	33,810명

표 9. 성별 청소년상담사 현황

구분	여	남	계
계	30,180명	3,630명	33,810명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 10조의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등)에 따르면, 청소년단체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단체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청소년복지시설, 초·중 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 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수교육의무대상기관에 종사하는 청 소년상담사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배출된 청소년상담사 가운데 실제 상담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자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22-15호)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사 연수와 관련한 업무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패널조사에 서는 앞서 규정된 목표모집단에 접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 원이 실시하는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초기 및 중기 단계의 상담자를 중심으로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함을 감안할 때, 청소년상담사 가운데 1급을 제외한 2급과 3급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청소년상담사 보수교 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으 로, 1급을 목표모집단에서 제외한 사유는 1급 청소년상담사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급 수에 비해 수가 적어서 패널유지율을 고려하여 1급을 포함하지 않았다.

다. 패널조사로서 고려 사항

패널조사에서 표본의 크기를 설정하기에 앞서 일반 횡단조사에서와 달리 추가로 고려하 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 패널조사를 몇 회 혹은 몇 년간 지속할 것인지와 조사 대상의 성격을 감안하여 조사가 반복됨에 따른 패널 유지율 혹은 패널 탈락률이 어느 정도 일 것인지 등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1) 패널조사 모형

본 조사는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지원

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자료를 얻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 단계에 있는 청소년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다 전망적 패널설계모형(multiple-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회고적 설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기억의 불완전성이나 현재의 상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응답 오류 등의 문제로 인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망적 설계에 근거한 패널조사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2) 패널 유지 기간(총 조사 기간)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제3항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따르면,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검정의 경우에는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거나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2급 자격검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1급 자격검정의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자가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추적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패널조사가 상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서를 파악하여 유의미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은 지속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³⁾.

3) 전문가 자문과정에서 패널 유지 기간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조사 목적과 더불어 조사비용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본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초기 및 중기 단계의 청소년상담사의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두어 5년으로 설정하였다.

3) 패널 유지율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가 반복됨에 따라 조사 탈락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 탈락률이 높다는 것은 당초 구성한 표본의 특성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사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함은 물론 경우 유의미한 자료분석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직업에 속한 대상에 대한 패널조사의 표본 유지율(혹은 탈락률)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 조사의 패널 유지율을 추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패널조사들의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노동패널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2차년도(1999년) 87.6%, 3차년도(2000년) 80.9%, 4차년도(2001년) 7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인성 외, 2022). 2007년 만 15~29세 청년층을 표본으로 구성하여 2020년 14차 조사까지 진행된 청년패널조사의 경우 2차 조사에서 91.2%를 보인 이후 5차 추적조사에서는 78.9%의 원표본 유지율을 보였다(한국고용정보원, 2021).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 한국복지패널의 경우에는 5차년도에 원표본 대비 80.25%의 유지율을 보였고(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2022),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장애인고용패널의 경우에는 5차년도 패널 유지율이 84.4%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

기존의 패널조사에서 나타난 패널유지율을 살펴보면, 2차년도에 원표본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10% 내외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5차년도 정도에 이르면 원표본 대비 75%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의 구성이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고, 본 조사의 목적이 단순한 실태 파악이 아닌 조사 대상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탐색하기 위한 조사임을 인식시킴으로써 조사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5차년도 조사에서 원표본 대비 75% 정도의 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⁴⁾.

라. 표본 설계

패널 조사의 경우 표본의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반 횡단조사와 달리 조사 지속기간과 패널조사 종료 시점에서의 패널 유지율을 어느 정도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패널조사는 적어도 5년 정도는 유지하여야 당초 의도한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5차년도의 패널유지율은 적어도 원표

4) 당초 5년 경과 후의 표본유지율을 80%로 설정하는 것이 검토되었으나,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75%를 목표 표본유지율로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표본을 설계하였다.

본 대비 80%는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1차년도에 표본의 크기는 적어도 5차년도까지의 패널 유지율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표본설계는 다단계 층화표집 방법을 통하여 설정할 수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본 추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표본프레임은 조사시점 전년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자 현황으로 2022년 보수교육 이수자의 성별 및 급수별 현황은 표 10과 같다.

표 10. 2022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1급	2급	3급	계
남	27 (6.3) ^a (10.0) ^b	184 (43.0) (8.1)	217 (50.7) (9.8)	428 (100.0) (9.0)
여	242 (5.6) (90.0)	2,083 (48.3) (91.9)	1,987 (46.1) (90.2)	4,312 (100.0) (91.0)
계	269 (5.7) (100.0)	2,267 (47.8) (100.0)	2,204 (46.5) (100.0)	4,740

a 해당 성별의 급별 백분율

b 해당 급의 성별 백분율

출처 : 202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내부자료

2022년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에 참여한 4,749명 가운데 본 패널연구의 조사대상자인 2급과 3급 자격증 소지자는 각각 47.8%인 2,267명, 46.5%인 2,204명으로 총 4,471명이다. 이를 보수교육 참여자의 성별과 자격급수 별로 구분하여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표본 프레임의 성별 및 자격급수별 구성 분포 (단위: %)

구분	2급	3급	계
남	4.1	4.9	9.0
여	46.6	44.4	91.0
계	50.7	49.3	100.0

매년 보수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다소 증감함을 감안하여 4,500명을 기준으로 기존의 표본산출 공식을 활용하여 적정 수준의 표본 크기를 산출하면, 오차한계를 3~4%로 설정하는 경우 예상 표본크기는 530-863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위의 최소값을 원표본 유지율이 75%인 5차년도 조사의 응답자의 최소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1차년도에 조사가 필요한

인원은 약 707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조건들을 최소한으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인원임을 감안하여, 1차년도 조사의 응답자 수는 적어도 750명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토대로 성별 및 자격급수별로 필요한 조사 인원을 <표 4>의 분포 비율에 근거하여 배분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의 성별 및 자격급수별 표본 배분 (단위: 명)

구 분	2급	3급	계
남	31	37	68
여	349	333	682
계	380	370	750

1차년도 조사에서 750명으로 설정된 목표표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 응답률을 감안하여 표본의 크기를 이보다 다소 크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표본 배분은 <표 3>의 분포 비율에 근거하여 재산출이 가능하다.

마. 조사 방법

본 조사가 청소년 상담 현장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응답하는 것에 대해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익숙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본 조사에서는 전문 면접원을 통한 방문면접보다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 인터넷조사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패널 조사의 경우 조사의 내용이 일반 횡단 조사에 비해 적지 않은 분량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 경우 단순 인터넷조사는 정확한 응답을 도출하거나, 응답자를 추적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본 조사가 최소 수년간 지속적인 조사 참여를 필요로 하는 패널조사임을 감안하여 각 시점에서 응답을 유도하고, 이어지는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패널 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패널조사에서는 일정 수준의 패널 유지율 확보를 위해 면접원에 의한 방문조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항에 대한 무응답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아울러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조사표 설계 단계에서 조사 문항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통해 응답자들이 문항을 이해하고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장실사 단계에서 TAPI (Tablet-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법을 사용하여 무응답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응답이 발생하는 경우 무응답 조정 가중치(non-reponse weight)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 응답자 관리

1) 패널 탈락자 처리

본 조사는 패널연구이기 때문에 조사가 거듭됨에 따라 패널에서 이탈하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본 연구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함에 따라 처음 표본추출 당시에는 청소년상담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응답자 가운데 직장을 옮기거나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상담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비록 응답자 가운데 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청소년상담 영역에서 근무를 이어가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응답자 가운데 아예 일을 그만두거나 청소년상담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표본에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표본대체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패널유지를 위한 응답자 관리

아울러 표본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패널조사가 완료되는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패널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장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 행정기관의 공문, 적정 수준의 답례품 지급, 경품행사, 명절 선물 등을 포함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응답자 관리 기법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조사가 청소년상담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유의미한 결과를 뉴스레터 등의 형식으로 알려줌으로써 자신들의 조사 참여가 청소년상담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주지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패널유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본 조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수행하는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참여자의 입

장에서 볼 때,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상급기관 성격을 갖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자신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수년간에 걸쳐 취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응답자의 관점에서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응답내용과 관련한 비밀 유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주관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기관과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철저히 실사기관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표본 설계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진행하되, 표본 추출 및 현장 실사, 표본의 유지 관리 등과 관련한 업무는 실사기관이 담당하며, 이러한 업무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에서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완전히 배제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자료의 입력과 정리 등에 관한 업무도 실사기관이 직접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료 정리 과정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의 협의를 통해 설정하고, 실제 정리 작업은 실사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종이설문지를 사용할 경우 입력을 마친 설문지는 실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 기관 경과 후 직접 폐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자료에 국한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함과 동시에 이러한 내용을 조사 첫 해부터 조사참여자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사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에 관한 정보를 상급기관이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응답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3. 예비조사 실시 및 평가

가. 예비조사 문항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3차)

예비문항 선정을 위해 척도에 대해 청소년상담사 분야 학계 전문가 4명의 내용타당도 검토를 받았다. 검토 결과, 청소년상담사의 경력발달과 직무환경을 반영한 문항 개선이 필요하고 개발시기가 오래되었거나 변안된 척도의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문항 수정을 함께 검토 받았다. 이에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구진 합의를 거쳐 최종 예비조사 문항을 선정하였다.

표 13. 패널조사 항목 및 측정도구(3차)

(N=4)

연번	변인	정의	문항수	하위척도	적합	부적합
1	상담자 발달	상담자의 실제적 전문성 발달 수준 측정	50	상담대화기술(10문항)	3	1
				사례이해(11문항)	3	1
				알아차리기(9문항)	3	1
				상담계획(11문항)	3	1
				인간적·윤리적 태도(9문항)	3	1
2	상담자 정체성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측정	20	전문지식 및 기술(7문항)	2	2
				역할 및 태도(5문항)	2	2
				가치 및 신념(8문항)	2	2
3	대리외상	상담자의 대리외상 측정	28	생리적 영향(6문항)	3	1
				정서적 영향(4문항)	3	1
				인지적 영향(5문항)	3	1
				사회적 영향(5문항)	3	1
				상담관계 영향(4문항)	3	1
				긍정적 영향(4문항)	3	1
4	상담자 소진	상담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자 소진 측정	20	신체적 피로감(4문항)	4	-
				무능감(4문항)	4	-
				비협조적 업무환경(4문항)	4	-
				내담자 가치저해(4문항)	4	-
				사생활로 악화(4문항)	4	-
5	직무스트레스	상담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자 스트레스 측정	36	업무량(8문항)	4	-
				조직관련 어려움(5문항)	4	-
				상담관련 어려움(13문항)	4	-
				관계갈등(10문항)	4	-
6	자기 효능감	상담자 효능감 측정	40	조력기술 자기효능감(14문항)	4	-
				회기관리 자기효능감(10문항)	4	-
				상담난제 자기효능감(16문항)	4	-
7	수퍼비전	수퍼바이저의 개인적 반응 측정	12	수퍼바이저에 대한 평가(4문항)	4	-
				상담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4문항)	4	-
				수퍼비전에서 편안함 수준(4문항)	4	-
8	상담자 직무요구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 측정	42	직무요구-역할갈등(7문항)	4	-
				직무요구-양적 업무 과부하(4문항)	4	-
				직무요구-질적 업무 과부하(4문항)	4	-
				직무자원-전문성 개발 기회(7문항)	4	-
				직무자원-자율성(4문항)	4	-
				직무자원-사회적지지(8문항)	4	-
				직무자원-보수(4문항)	4	-
				직무자원-소명감(4문항)	4	-
합 계			248			

총 8개 조사항목, 37개 하위척도 총 248개 문항에 대해 자문위원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척도가 청소년상담사 발달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대리외상 척도의 경우, 특정 위기상담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담자에게 주로 국한된 척도로 보이며, 수퍼비전 척도의 경우, 수퍼바이저 본인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나. 청소년상담현장 종사자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패널 본 조사를 위한 기초조사의 성격을 띤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적 견지에서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예비조사에 반영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현장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문항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기존 구성된 조사문항에서 중복된 척도(자기탄력성, 스트레스 관리 척도), 상담자 발달을 측정하기에 부적절한 척도(역전이 관리능력 및 활용)를 제외하였고, 청소년상담사 발달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관계있다고 볼 수 있는 척도(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측정 척도, 상담자 스트레스 척도)를 추가하였다. 이에 예비조사 최종문항은 상담자 발달, 상담자 정체성, 대리외상, 상담자 소진, 상담자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수퍼비전, 상담자 직무 요구-자원 척도로 총 9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패널 조사문항의 적절성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패널문항 구성의 적합성, 조사 문항수의 적절성, 조사 문항의 타당성 등에 대해 청소년상담현장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상담사 패널 모형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조사설계의 초안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예비조사의 조사대상은 2022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들을 주된 대상으로 선정한 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상담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을 파악하기 용이하며, 패널조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표본설계에 따른 목표인원은 청소년상담사 비율에 따라 2, 3급으로 구성하였지만, 예비조사 문항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2023년 9월 19일~2023년 9월 26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되었으며, 온라인

설문 플랫폼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59명으로 실시되었으나, 실제 분석에 포함된 최종 사례는 152명으로 결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예비조사 결과 분석에 포함된 152명의 응답자의 기본 특성은 표 14와 같다.

표 14. 예비조사 응답자 기본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52	100
성별	남	22	14.5
	여	130	85.5
연령	20대	8	5.3
	30대	38	25
	40대	47	30.9
	50대	56	36.8
	60대 이상	3	2
급수 (상위 급수)	1급	19	12.5
	2급	93	61.2
	3급	40	26.3
전공	교육학	45	29.6
	사회학	0	-
	사회복지학	13	8.6
	심리학	66	43.4
	아동학	2	1.3
	청소년학	5	3.3
	기타	21	13.8
소속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5	29.6
	청소년쉼터	7	4.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1.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2	1.3
	청소년자립지원관	1	0.7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0	-
	청소년단체	0	-
	학교	69	45.4
	Wee센터·Wee스쿨	22	14.5
	교육청산하기관	2	1.3
기타	2	1.3	

2) 조사 결과

(1) 상담자 발달

상담자 발달수준과 관련하여 5개 하위 척도 50개 문항별로 조사한 결과, ‘내담자 이야기

를 잘 들어준다(3.74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한 치료기법들을 제대로 사용한다(2.82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상담자 발달의 하위변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상담대화기술 0.895, 사례이해 0.905, 알아차리기 0.900, 상담계획 0.896, 인간적·윤리적 태도 0.858로 분석되었다.

표 15. 상담자 발달 변인 신뢰도 분석 결과

(N=152)

하위변인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통계량
상담 대화기술	1	내담자의 말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다.	3.42	0.534	0.895
	12	내담자 말에서 중요한 주제를 잘 따라간다.	3.42	0.605	
	20	상담자의 말의 의도가 분명하게 표현된다.	3.36	0.658	
	22	내담자가 자기를 탐색할 수 있게 대화를 이끈다.	3.45	0.608	
	25	대화의 맥락이 자연스럽게.	3.40	0.655	
	28	내담자가 얘기하는 것의 이면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묻는다.	3.31	0.665	
	29	공감표현을 잘한다.	3.44	0.689	
	37	내담자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3.74	0.443	
	42	내담자의 말이 모호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묻는다.	3.50	0.599	
	44	내담자의 진술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약한다.	3.37	0.639	
사례이해	4	내담자의 대인관계양상을 이해한다.	3.60	0.505	0.905
	7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잘 파악한다.	3.33	0.628	
	10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	3.28	0.632	
	14	내담자가 상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	3.26	0.658	
	15	내담자의 증상을 잘 파악한다.	3.36	0.580	
	18	내담자에게서 나온 자료를 종합하여 내담자를 이해한다.	3.58	0.509	
	24	내담자 증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왔는지 안다.	3.05	0.694	
	38	내담자의 사회적 지지체제를 본다.	3.67	0.499	
	41	내담자에 대한 평가(assessment)가 폭 넓다.	3.20	0.671	
	49	내담자가 현시점에서 상담하게 된 동기를 안다.	3.34	0.575	
50	내담자의 장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본다.	3.53	0.539		
알아 차리기	5	내담자의 감정을 잘 포착한다.	3.47	0.630	0.900
	6	내담자가 표현하는 말의 의도를 안다.	3.42	0.558	
	9	내담자의 내적상황을 잘 감지한다.	3.15	0.669	
	13	내담자 변화를 잘 알아차린다.	3.45	0.639	
	19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안다.	3.61	0.554	
	33	지금-여기서의 내담자 감정에 대한 언급을 잘한다.	3.45	0.585	

하위변인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통계량
	35	내담자 대화에서 드러난 것 이면을 본다.	3.32	0.582	
	43	상담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잘 본다.	3.20	0.728	
	48	내담자 순간순간의 마음을 잘 잡는다.	3.24	0.638	
상담계획	2	내담자의 행동변화를 위하여 특정한 계획을 세운다.	3.38	0.596	0.896
	16	적절한 시기에 개입한다.	3.19	0.596	
	24	상담을 짜임새 있게 이끈다.	3.05	0.668	
	26	바람직한 내담자의 행동을 강화해준다.	3.67	0.694	
	30	상담목표와 일치하는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을 분별해서 사용한다.	2.89	0.471	
	31	내담자 문제를 다루는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접근한다.	3.43	0.686	
	32	상담목적을 분명히 잡고 상담을 이끌고 간다.	3.28	0.637	
	34	내담자와 상담목표를 합의한다.	3.46	0.653	
	40	문제해결의 대안이 적절하거나 다양하다.	3.22	0.608	
	45	중요한 치료기법들을 제대로 사용한다.	2.82	0.709	
	인간적· 윤리적 태도	3	내담자에게 평가적이거나 판단적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한다.	3.28	
8		내담자와 상담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3.51	0.609	
11		내담자를 자신있게 대한다.	3.45	0.707	
17		내담자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3.57	0.605	
21		내담자에게 진실하고 솔직하다.	3.61	0.554	
27		내담자를 보는 시간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3.70	0.486	
36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좋아한다.	3.59	0.580	
39		내담자 문제에 가려진 내담자의 성장가능성을 본다.	3.61	0.577	
46		내담자 변화를 내담자가 인지하게 한다.	3.38	0.563	
47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주는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받 아들인다.	3.36	0.591	

(2) 상담자 정체성

상담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3개 하위 척도 20개 문항별로 조사한 결과, ‘나는 성찰과 자기 돌봄이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에 중요하다고 믿는다(5.7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나는 내담자 문제에 적절한 상담이론과 기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4.41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상담자 정체성발달의 하위변인별 신뢰도 통계량을 살펴보면, 전문지식 및 기술 0.895, 역할 및 태도 0.843, 가치 및 신념 0.879로 분석되었다. 상담자 정체

성발달의 하위변인별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전문지식 및 기술 0.895, 역할 및 태도 0.843, 가치 및 신념 0.879로 분석되었다.

표 16. 상담자 정체성 변인 신뢰도 분석 결과

(N=152)

하위변인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통계량
전문지식 및 기술	1	나는 내담자 문제에 적절한 상담이론과 기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4.41	0.784	0.858
	2	나는 내담자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다.	4.96	0.727	
	3	나는 다양한 전문역할(예: 상담자, 교육자, 전문가, 평가자 등)을 해낼 수 있다.	4.86	0.822	
	4	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례개념화 하기 위해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4.70	0.830	
	5	나는 상담 심리학의 중요 이론들을 잘 알고 있다.	4.61	0.847	
	6	나는 상담 심리학의 최신 이론 및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4.53	1.196	
	7	나는 상담 심리학과 타 전문 분야(예: 의학, 법학, 교육학, 윤리학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고 있다.	4.45	1.022	
역할 및 태도	8	나는 상담자 자격 기준에 필요한 수련과 교육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21	0.743	0.843
	9	나는 상담자의 역할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5.28	0.750	
	10	나는 상담자로서 나의 의사결정과 판단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5.61	0.587	
	11	나는 상담자 윤리강령의 실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	5.45	0.679	
	12	나는 상담 수행과 관련된 윤리적 요소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	5.30	0.737	
가치 및 신념	13	나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돕는 일이 매우 뿌듯하다.	5.49	0.789	0.879
	14	나는 상담이 내담자의 강점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힘을 준다고 믿는다.	5.52	0.709	
	15	나는 상담 전문직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5.24	0.906	
	16	나는 상담사의 활동이 사회의 복지와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5.58	0.615	
	17	나는 인간 존중의 철학적 입장을 지닌 상담자이다.	5.60	0.674	
	18	나는 성찰과 자기 돌봄이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에 중요하다고 믿는다.	5.72	0.533	

하위변인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통계량
	19	나는 슈퍼비전이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5.56	0.668	
	20	나는 내담자의 권익과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상담사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한다.	5.41	0.784	

(3) 대리외상

상담자 대리외상과 관련하여 6개 하위 척도 28개 문항별로 조사한 결과, ‘내담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중압감이 커진다(3.14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담자를 지원하면서 내 배우자나 파트너를 성적으로 멀리하게 된다(1.66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대리외상 하위변인별 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생리적 영향 0.808, 정서적 영향 0.767, 인지적 영향 0.833, 사회적 영향 0.799, 상담관계 영향 0.723, 긍정적 영향 0.727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7. 대리외상 변인 신뢰도 분석 결과

(N=152)

하위변인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통계량
생리적 영향	1	내담자의 외상 이야기를 듣고 잠이 오지 않거나 악몽을 꾸기도 한다.	2.30	1.163	0.808
	7	내담자의 외상 이야기를 들으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2.26	1.171	
	13	내담자를 지원하면서 내 배우자나 파트너를 성적으로 멀리하게 된다.	1.66	0.927	
	15	내담자를 지원하고 나면 단 음식(초콜릿, 사탕, 과자 등)이 당긴다.	3.37	1.290	
	27	내담자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을 만큼 진이 빠진다.	2.14	1.098	
	28	내담자를 지원하고 나면 어깨가 딱딱해지거나 소화기 안되는 신체증상을 느낀다.	2.62	1.228	
정서적 영향	2	내담자를 충분히 돕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낀다.	2.82	1.15	0.767
	22	내담자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우울해진다.	1.97	1.08	
	25	내담자가 같은 문제행동을 반복할 때 나도 무력감에 빠진다.	3.11	1.13	
	26	내담자 외상 이야기가 너무 끔찍하고 무섭게 느껴진다.	2.36	1.15	
인지적 영향	3	내담자의 외상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	2.41	1.22	0.833

하위변인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통계량
	6	내담자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89	1.11	
	8	가해 이야기를 계속 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호의를 의심하게 된다.	2.14	1.15	
	10	가해 이야기를 자주 접하면서 내 가족의 안전을 의심하게 된다.	2.20	1.19	
	18	내담자를 지원하면서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1.80	1.02	
사회적 영향	4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면서 대인관계가 점점 더 제한된다.	2.51	2.51	0.799
	9	나의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다.	1.92	1.92	
	11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이나 화를 낸다.	2.16	2.16	
	19	내담자를 지원하는 일을 중시하다보니 가족에게 소홀해진다.	2.04	2.04	
	24	가라앉은 내 기분이 동료들에게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된다.	2.37	2.37	
상담관계 영향	5	퇴근 후에도 내담자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고 걱정된다.	2.51	1.20	0.723
	12	내담자의 힘든 얘기를 듣다보면 상담시간이나 퇴근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2.53	1.32	
	16	내담자에게 과도하게 애정을 쏟거나 도움을 주려고 한다.	3.03	1.00	
	20	내담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중압감이 커진다.	3.14	1.06	
긍정적 영향	14	외상을 이겨내고 성장해가는 내담자를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4.36	0.865	0.727
	17	내담자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	4.06	0.915	
	21	힘든 내담자를 지원하면서 상담가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3.94	0.748	
	23	외상의 영향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내담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3.49	0.956	

(4) 상담자 소진

상담자 대리와의상과 관련하여 5개 하위 척도 20개 문항별로 조사한 결과, ‘상담자라는 직업 때문에, 나는 대부분의 시간에 피곤함을 느낀다(3.00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내담자들의 행복에 대해 점점 걱정하지 않게 된다(1.76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상담자 소진에 대한 하위변인별 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하였으며, 신체적

피로감 0.869, 무능감 0.877, 비협조적 업무환경 0.827, 내담자 가치저하 0.858, 사생활로 악화 0.866이었다.

표 18. 상담자 소진 변인 신뢰도 분석 결과

(N=152)

하위변인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통계량
신체적 피로감	1	상담자라는 직업 때문에, 나는 대부분의 시간에 피곤함을 느낀다.	3.00	1.06	0.869
	6	상담자라는 직업이 나를 진 빠지게 한다.	2.42	1.28	
	11	상담자라는 직업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2.44	1.23	
	16	상담자라는 직업 때문에 어깨와 등이 뻐뻐해졌다.	2.70	1.39	
무능감	2	나는 내가 능력이 없는 상담자로 여겨진다.	2.22	1.062	0.877
	7	상담자로서의 나의 능력에 실망해 간다.	2.14	1.157	
	12	나의 상담 기술에 대해 자신이 없다.	2.33	1.114	
	17	내가 내담자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자신이 없다.	1.94	0.930	
비협조적 업무환경	3	나는 직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2.58	1.30	0.827
	8	직장상사 또는 수퍼바이저에게 깔끄러움을 느낀다.	2.16	1.15	
	13	나는 직장의 조직체계에 꼼짝없이 매어 있다.	2.54	1.36	
내담자 가치저하	4	나는 나의 내담자와 그들의 문제에 관심이 점점 없어진다.	2.13	1.137	0.858
	9	나는 내담자들에 대해 점차 무뎌져 간다.	1.88	1.003	
	14	나는 내담자의 문제에 공감하기가 점점 힘들다.	1.83	0.947	
사생활로 악화	19	나는 내담자들의 행복에 대해 점점 걱정하지 않게 된다.	1.76	0.940	0.866
	5	나는 상담자로 일하면서, 가족에게 소홀해져 간다.	2.14	1.21	
	10	내게는 개인적 관심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2.51	1.40	
	15	나는 친구들과 보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2.36	1.27	
	20	나는 일과 내 개인생활의 영역을 분명하게 선 긋기가 어렵다.	2.20	1.21	

(5) 상담자 스트레스

상담자 스트레스는 4개 하위 척도 36개 문항별로 조사한 결과, ‘학회 연수, 워크샵에 대한 재정적 지원 부족에서 가장 높은 점수(1.93점)’가 나타났으며, 반면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하는 것에서 가장 낮은 점수(0.76점)'를 나타냈다. 상담자 스트레스 변인의 하위변인별 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업무량 0.795, 조직관련 어려움 0.890, 상담관련 어려움 0.922, 관계갈등 0.917로 나타났다.

표 19. 상담자 스트레스 변인 신뢰도 분석 결과

(N=152)

하위변인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통계량
업무량	1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의 부족	1.08	0.910	0.795
	2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업무	1.82	1.026	
	3	모든 업무를 만족스럽게 할 만큼 충분치 않은 시간	1.74	1.021	
	4	가정생활에까지 연결되는 업무	1.27	1.016	
	5	너무 많은 내담자(환자)	1.43	1.046	
	6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배우자(애인)와의 관계	0.93	0.970	
	7	과도하게 긴 업무 시간	1.11	1.020	
	8	충분하지 않은 여가 시간	1.40	1.123	
조직관련 어려움	9	직장의 지원 부족	1.61	1.068	0.890
	10	학회 연수, 워크샵에 대한 재정적 지원 부족	1.93	1.059	
	11	적절한 장비/물자의 부족	1.38	1.054	
	12	직장의 열악한 관리(경영) 및 수퍼비전	1.70	0.984	
	13	열악한 물리적 작업 여건	1.33	1.021	
상담관련 어려움	14	내담자와의 종결	0.85	0.836	0.922
	15	내담자(환자)의 정서적 요구를 다루는 능력이나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1.31	0.951	
	16	죽음이나 고통을 다루는 것	1.45	0.919	
	17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1.33	0.926	
	18	전문적인 일과 개인적인 일을 분리하는 것의 어려움	0.97	0.956	
	19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느린 내담자(환자)	1.65	0.938	
	20	어려운 내담자(환자)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1.61	0.942	
	21	까다롭거나 요구가 많은 내담자(환자)	1.76	0.904	
	22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해결)	1.45	0.852	
	23	상담(치료)의 치료적인 효능에 대한 의심	1.07	0.870	
	24	최신의 전문적이고 임상적인 기술을 유지하는 것	1.49	0.838	
	25	치료적 관계의 유지	1.15	0.820	
	26	상담(치료)에서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	1.21	0.913	
관계갈등	27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의 갈등(예. 의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	0.99	0.910	0.917
	28	직속 상사와의 관계	1.08	0.939	
	29	다른 전문가들과의 역할 갈등	0.85	0.867	
	30	직장에서 의사소통과 정보교류	1.08	0.932	

하위변인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통계량
	31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하는 것	0.76	0.795	
	32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의 비판(예. 의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	0.93	0.889	
	33	조직 내 갈등 해결 방법	1.17	0.919	
	34	동료의 정서적인 지원 부족	1.15	1.057	
	35	직장에서 느끼는 공허감이나 고립감	1.24	1.104	
	36	특정 동료와 같이 일하는 것의 어려움	1.02	1.051	

(6) 자기효능감

상담자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3개 하위 척도 40개 문항별로 조사하였다. 특히 상담난제 자기효능감 척도는 내담자에 따른 확신여부를 조사하였다. 이에 ‘신체적으로 당신의 몸을 내담자에게로 향한다(7.94점)’가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반면에 ‘내담자가 회기와 회기 사이에 시도 할 치료적인 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6.77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상담난제 자기효능감 척도에서는 ‘최근 외상적인 생활사건(신체적, 심리적 상처 혹은 학대)을 경험한 내담자를 다룰 확신’이 가장 높은 점수(6.39점)를 보였고, ‘성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내담자를 다룰 확신’이 가장 낮은 점수(4.99점)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하위변인별 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조력기술 자기효능감 0.888, 회기관리 자기효능감 0.948, 상담난제 자기효능감 0.939로 정리되었다.

표 20. 자기효능감 변인 신뢰도 분석 결과

(N=152)

하위변인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통계량
조력기술 자기 효능감	1	신체적으로 당신의 몸을 내담자에게로 향한다.	7.94	0.944	0.888
	2	내담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포착하고 이해한다.	7.93	0.882	
	3	내담자가 말한 것을 간결하고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반복하거나 바꿔 말해준다.	7.65	1.025	
	4	내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명료화하거나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한다.	7.60	1.186	
	5	내담자의 감정을 강조하면서 내담자의 진술을 반복하거나 바꿔 말해준다.	7.57	1.177	
	6	상담자의 성장사, 자격, 혹은 느낌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드러낸다.	7.12	1.671	
	7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접촉할 수 있도록 침묵한다.	6.81	1.880	

하위변인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통계량
	8	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바꾸고 싶어하지 않거나 바꿀 수 없는 불일치, 모순, 방어, 비합리적 신념 등을 지적해준다.	6.92	1.546	
	9	내담자가 겉으로 말하는 것 이상을 이야기해주어 내담자의 행동, 사고, 느낌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7.22	1.212	
	10	개인적인 통찰을 얻었던 상담자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해 털어놓는다.	7.01	1.749	
	11	치료적 관계, 내담자와의 관계 또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즉각적인 느낌을 털어놓는다.	7.36	1.310	
	12	자료, 의견, 사실, 자원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내담자에게 제시하거나 가르친다.	7.73	1.307	
	13	내담자가 취할 행동을 암시하는 제안, 지시, 또는 조언 등을 내담자에게 제공한다.	7.18	1.621	
	14	내담자가 회기와 회기 사이에 시도 할 치료적인 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6.77	1.774	
회기관리 자기 효능감	15	상담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담회기의 흐름을 유지하고 초점을 맞춘다.	7.11	1.26	0.948
	16	매 순간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기초해 최선의 조력기술로 반응한다.	7.20	1.32	
	17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 느낌 및 행동을 탐색 하도록 돕는다.	7.51	1.04	
	18	내담자가 '깊은' 수준에서 자신의 고민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돕는다.	7.28	1.38	
	19	내담자가 말한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안다.	7.07	1.29	
	20	내담자가 현실적인 상담목표를 세우도록 돕는다.	7.53	1.25	
	21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 느낌 및 행동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7.68	1.08	
	22	내담자 및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사례개념화를 한다.	7.02	1.28	
	23	회기 중 당신의 의도(즉 개입 목적)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7.53	1.31	
	24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도록 돕는다.	7.53	1.22	
상담난제 자기 효능감	25	임상적으로(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	6.18	1.70	0.939
	26	성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내담자	4.99	2.26	
	27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내담자	5.95	2.00	
	28	최근 외상적인 생활사건(신체적, 심리적 상처 혹은 학대)을 경험한 내담자	6.39	1.63	
	29	극도로 불안한 내담자	6.31	1.85	

하위변인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통계량
	30	심각한 사고 혼란의 징후를 보이는 내담자	5.28	2.08	
	31	성적으로 끌리는 내담자	5.79	2.38	
	32	상담자 개인적으로도 다루기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	5.05	2.22	
	33	당신의 가치나 믿음과 충돌되는 핵심적인 가치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내담자(예: 종교, 성역할)	5.97	2.18	
	34	당신과 현저하게 다른 내담자(예: 인종, 민족, 성별, 나이, 사회계층 등)	6.54	1.76	
	35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혹은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는 내담자	5.83	1.93	
	36	당신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내담자	5.33	2.49	
	37	당신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예: 지루함, 성가심)을 갖게 만드는 내담자	5.80	1.92	
	38	상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내담자	5.57	1.72	
	39	당신이 제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내담자(만남의 횟수 혹은 문제 해결책 등)	6.26	1.90	
	40	회기 중 교묘하게 당신을 통제하고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내담자	6.13	2.09	

(7) 슈퍼비전

슈퍼비전은 3개 하위 척도 12개 문항별로 조사한 결과, '나는 이 슈퍼바이저와의 경험을 통해 슈퍼비전에 대해 더 소중하게 되었다(4.01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가끔 슈퍼바이저에게 내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망설였다(3.16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슈퍼비전의 3가지 하위변인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슈퍼바이저에 대한 평가 0.798, 상담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 0.808, 슈퍼비전에서 편안함 수준 0.798로 나타났다.

표 21. 슈퍼비전 변인 신뢰도 분석 결과

(N=152)

하위변인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통계량
슈퍼바이저에 대한 평가	1	나는 슈퍼바이저를 만나서 그가 말하는 것들을 간절히 듣기 원했다.	3.74	1.238	0.798
	2	나는 이 슈퍼바이저와의 경험을 통해 슈퍼비전에 대해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4.01	0.993	
	3	나의 슈퍼바이저가 말한 많은 것들이 실제로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다.	3.86	0.986	

하위변인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통계량
상담자로서 자신에 대한 평가	4	나의 슈퍼바이저의 태도는 내가 슈퍼비전에서 정말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3.91	0.972	0.808
	5	슈퍼바이저가 무엇인가를 말한 이후 때때로 나는 무슨 반응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3.32	1.06	
	6	때로는 슈퍼바이저가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내가 말한 것을 왜곡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3.51	1.16	
	7	때때로 내가 난처한 상황에 있다고 느꼈다	3.60	1.13	
	8	나의 슈퍼바이저는 내가 내담자에 대해 어떤 결론들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느껴졌지만 나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몰랐다	3.35	1.07	
슈퍼비전에서 편안함 수준	9	슈퍼바이저가 한 말들 때문에 짜증이 났다.	3.55	1.13	0.798
	10	때때로 슈퍼바이저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화가 났다.	3.51	1.16	
	11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인터뷰 동안 초조함을 느꼈다.	3.54	1.15	
	12	가끔 슈퍼바이저에게 내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망설였다.	3.16	1.22	

(8) 상담자 직무 요구-자원 척도

상담자 직무-요구 자원척도는 8개 하위 척도 42개 문항별로 조사하였으며, 8개 하위 척도는 부정적 요인(역할갈등, 양적 업무 과부하, 질적 업무 과부하)과 긍정적 요인(전문성 개발 기회, 자율성, 사회적지지, 보수, 소명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부정적 요인에서는 ‘현재 상담 업무 외에 다른(행정, 사업 등) 업무들을 함께하고 있다(4.24점)’가 가장 높았으며, ‘현재 기관을 통해 의뢰 받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부담감을 느낀다(2.41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긍정적 요인에서는 ‘내담자를 돕는 것이 삶의 큰 의미이다(4.37점)’가 가장 높았으며, ‘현재 보수에 만족한다(2.11점)’가 가장 낮았다. 하위 척도 직무요구-역할갈등 문항 중, 3번과 7번 문항은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으로 제거하였다. 상담자 직무요구-자원 변의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직무요구-역할갈등 0.900, 직무요구-양적 업무 과부하 0.808, 직무요구-질적업무 과부하 0.859, 직무자원-전문성 개발기회 0.932, 직무자원-자율성 0.813, 직무자원-사회적지지 0.819, 직무자원-보수 0.773, 직무자원-소명감 0.760으로 나타났다.

표 22. 상담자 직무 요구-자원 변인 신뢰도 분석 결과

(N=152)

하위변인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통계량
직무요구-역할갈등 등 (7문항)	1	현재 상담 업무 외에 다른(행정, 사업 등) 업무들을 함께 하고 있다.	4.24	1.22	0.532 (※ 3, 7문항 제거로 수정된 신뢰도 통계량 0.900)
	2	현재 개인 상담보다 행정, 서류, 사업 등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서 상담자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한다.	3.51	1.34	
	3	현재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심리검사, 상담수퍼비전 등 오롯이 상담 업무만하고 있어서 정체성에 혼란이 없다.	2.13	1.30	
	4	현재 상담자인지 행정자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3.15	1.42	
	5	현재 상담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할 때 회의감이 든다.	3.03	1.43	
	6	현재 서류작업과 행정업무에 몰두하여 상담 준비를 못하거나 상담에 집중을 못할 때가 있다.	3.38	1.36	
	7	현재 서류작업과 행정업무는 상담과 관련된 최소한의 것만 한다.	2.43	1.29	
직무요구-양적 업무 과부하 (4문항)	8	근무 기관에서 가시적인 상담 성과에 대한 부담을 준다.	2.67	1.38	0.808
	9	현재 사례수 위주의 상담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	2.67	1.45	
	10	현재 휴식을 취할 여유 없이 많은 양의 상담사례를 하고 있다.	2.60	1.31	
직무요구-질적 업무 과부하 (4문항)	11	기본적으로 한 주에 해야 하는 상담사례 혹은 수련, 상담사례 지도 등의 상담본연의 업무량이 많다.	2.91	1.34	0.859
	12	현재 기관을 통해 의뢰 받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부담감을 느낀다.	2.41	1.26	
	13	현재 기관을 통해 의뢰 받은 내담자의 보호자가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부담감을 느낀다.	2.43	1.23	
	14	현재 기관을 통해 의뢰 받은 내담자가 상담에 비협조적이고 상담 동기가 없어서 부담스럽다.	2.67	1.21	
직무자원-전문성 개발 기회 (7문항)	15	현재 기관을 통해 의뢰 받은 내담자의 보호자가 상담에 비협조적이고 상담 동기가 없어서 부담스럽다.	2.59	1.23	0.932
	16	현재 업무는 다양한 상담사례를 만날 수 있어서 상담자로 성장할 기회를 갖는다.	3.78	1.11	
	17	현재 기관은 상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한 상담 사례수가 확보되고 있다.	3.68	1.15	
	18	현재 기관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상담자 성장에 도움이 된다	3.74	1.18	
	19	현재 기관에서는 다양한 상담 경험과 상담 실무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3.63	1.13	
	20	현재는 상담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상담자 성장의 기회가 된다.	2.79	1.22	
	21	현재 업무는 상담자 경력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3.78	1.02	
22	현재 업무는 상담 역량을 키우고 전문가로 발전하도록 한다.	3.64	1.05		

하위변인	번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통계량
직무자원 -자율성 (4문항)	23	현재 기관에서 나는 상담 스케줄과 사례수를 조절할 수 있다	3.60	1.15	0.813
	24	현재 상담 업무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며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3.84	1.09	
	25	현재 기관 내에서 소통이 가능하여 업무에 대해 조율을 할 수 있다.	3.64	1.06	
	26	현재 상담업무 계획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다	3.81	1.20	
직무자원 -사회적 지지 (8문항)	27	(수퍼바이저)현재 수퍼바이저는 내가 심리적으로 힘들 때 위로해 준다.	3.22	1.224	0.819
	28	(수퍼바이저)현재 수퍼비전을 받지 못해 수퍼바이저의 도움을 못 받고 있다.	3.00	1.386	
	29	(수퍼바이저)현재 수퍼바이저의 지도가 상담업무에 도움이 된다.	3.61	1.163	
	30	(동료)현재 기관 내 동료들과 업무에 대해 서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받는다.	3.56	1.211	
	31	(동료)현재 기관 내 동료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분위기이다.	3.70	1.115	
	32	(기관장) 현재 기관장과의 소통이 원활하며 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3.47	1.145	
	33	(기관장) 현재 상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기관장을 설득하고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 힘들다.	3.49	1.317	
	34	(기관장)현재 기관장은 나를 신뢰하고 지지해 준다.	3.84	0.929	
직무자원 -보수 (4문항)	35	현재의 보수에 만족한다.	2.11	1.24	0.773
	36	현재 일하는 시간과 양에 비해서 보수가 적다.	2.08	1.25	
	37	현재 경력과 학력이 보수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2.13	1.36	
	38	상담공부, 수퍼비전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기에 현재 보수가 적다.	1.78	1.17	
직무자원 -소명감 (4문항)	39	내담자를 돕는 것이 삶의 큰 의미이다.	4.37	0.769	0.760
	40	현재 상담업무에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있지 않다.	4.19	1.132	
	41	평생직이라 여기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4.03	1.139	
	42	현재 주어진 상담사례를 잘 수행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크다.	4.43	0.794	

(9) 기타의견

예비조사 참여자의 기타의견 분석 결과, 크게 조사영역(변인)의 적절성과 조사방법 및 조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진이 선정한 조사영역(변인)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유사한 변인이 다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대리외상 변인은 문항이 다소 어렵고, 해당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상담을 경험한 상담자가 매우 적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최종 문항 선정에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또한 상담자의 직무 관련 변인에서 다소 중복되는 문항이 많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패널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방법으로는 현행대로 온라인 조사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상담 현장은 환경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질적 조사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적절한 보상으로는 조사 결과 제시와 온라인 쿠폰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4.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

본 연구에서 청소년상담사 패널모형은 조사설계 및 표본설계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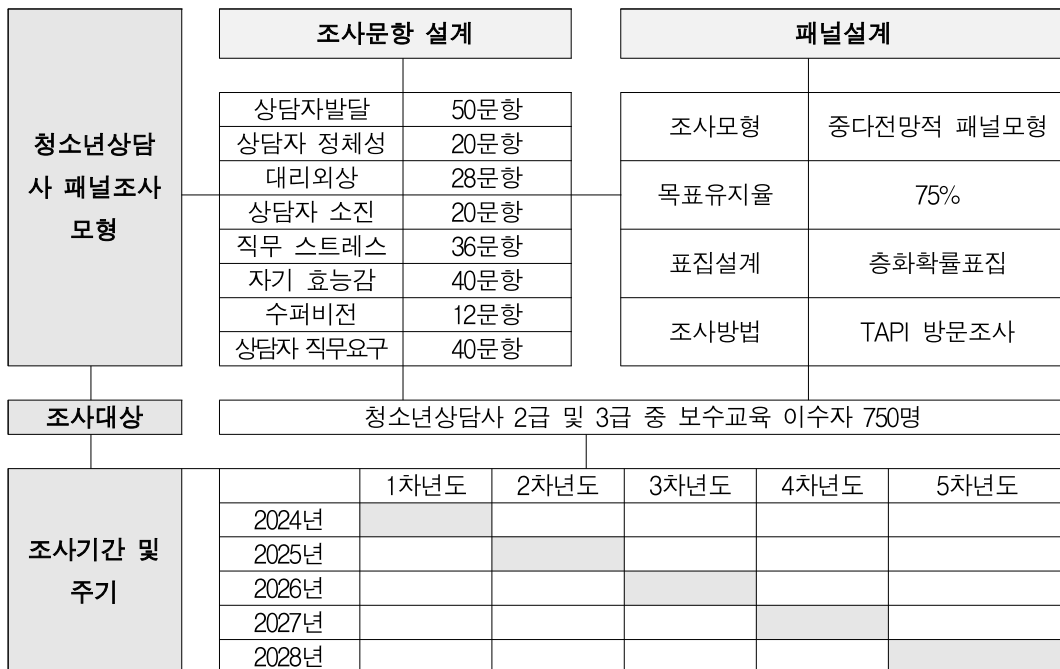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

가. 최종 조사설계

연구절차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 개발에서 최종 도출된 조사설계는 아래 표 23으로 정리되었으며, 청소년상담사 발달과 관련하여 8개 변인 246문항으로 정리되었다.

표 23. 최종문항 및 내용 요약

조사 영역	조사 항목	최종 문항수	내용
상담자 발달 (50문항)	상담대화기술	10	반영, 대화 맥락의 자연스러움, 치료기법 사용, 공감표현 등
	사례이해	11	내담자 핵심문제 및 상담동기 파악, 내담자 및 내담자 증상 이해 등
	알아차리기	9	감정 포착, 말의 의도, 내적상황 감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상담계획	10	상담 목표 합의, 내담자 행동 변화 계획, 적절한 개입, 행동 강화 등
	인간적·윤리적 태도	10	비판단적 태도유지, 상담관계 형성, 긍정적 시각, 피드백 수용 등
상담자 정체성 (20문항)	전문자식 및 기술	7	적절한 상담이론 선택, 위기상황 인식 및 개입, 사례개념화 등
	역할 및 태도	5	상담자 역할과 본질 인식, 판단에 대한 책임감, 윤리강령 실천 의무 등
	가치 및 신념	8	내담자 도움에대한 뿌듯함, 사회의 복지와 공익에 도움, 자기돌봄 등
대리위상 (28문항)	생리적 영향	6	심장 두근거리는 정도, 단 음식 섭취 정도, 신체증상에 대한 느낌 등
	정서적 영향	4	자책감, 우울, 무력감, 내담자 외상에 대한 무서운 느낌 등
	인지적 영향	5	사회에 대한 불신, 호의 및 내 가족 안전에 대한 의심, 삶의 무의미함 등
	사회적 영향	5	대인관계 제한, 가족에 대한 소홀, 동료들에 영향 등
	상담관계영향	4	내담자 안전에 대한 걱정, 상담시간 연장, 과도한 애증 및 중압감 등
	긍정적 영향	4	보람을 느끼는 정도, 회복력에 대한 신뢰, 상담자로서의 성장 등
상담자 소진 (20문항)	신체적 피로감	4	피곤함 느끼는 정도, 스트레스 정도, 신체적 통증 등
	무능감	4	무능력함을 느끼는 정도, 능력에 대한 실망감, 기술 및 내적 자신감 상실 등
	비협조적 업무환경	4	불공정 대우, 조직체계에 대한 좌절감 등
	내담자 가치저하	4	무관심함, 무더짐, 공감의 어려움 등
	사생활 악화	4	가족 및 친구 관계에 대한 소홀감, 사생활 영역 경계 불분명 등
직무 스트레스 (36문항)	업무량	8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 불충분한 업무 시간, 과도한 업무시간 등
	조직관련 어려움	5	직장 내 물적/인적 등 자원 부족, 열악한 업무환경 등
	상담관련 어려움	13	종결에 대한 어려움, 기술적 부족함 느끼는 정도, 치료적 관계 유지 등
	관계갈등	10	직속 상사와의 관계, 역할 갈등, 의사소통, 동료의 정서적 지원 등
자기 효능감	조력기술 자기효능감	14	주의 기울이기, 경청하기, 재진술하기, 감정반영, 해석 등에 대한 효능감

조사 영역	조사 항목	최종 문항수	내용
(40문항)	회기관리 자기효능감	10	상담회기 유지 및 초점, 현실적 상담목표 설정, 개입 목적에 대한 인식 등
	상담난제 자기효능감	16	고위기 내담자 상담에 대한 효능감, 부정적 내담자에 대한반응 등
수퍼비전 (12문항)	수퍼바이저에 대한 평가	4	수퍼비전에 대한 경험, 느끼는 정서 등
	상담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	4	수퍼비전에서 반응의 어려움, 난처함, 의도에 대한 왜곡 등
	수퍼비전에서 편안함 수준	4	수퍼바이저 피드백에 대한 정서, 불안 및 초조함 등
상담자 직무요구 (40문항)	역할갈등	5	상담 업무 외 업무 진행, 상담자 정체성 혼란 및 회의감 등
	양적 업무 과부하	4	성과에 대한 부담감, 압박감, 과도한 사례 수 등
	질적 업무 과부하	4	내담자 및 보호자에 대한 부담감, 비협조적인 내담자에 대한 어려움 등
	전문성 개발기회	7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만족감, 충분한 사례 수, 경력 및 전문성 성장 등
	자율성	4	사례 수 조정, 업무에 대한 조율 등
	사회적지지	8	수퍼바이저의 도움 및 지지, 기관장 및 동료들과의 관계 등
	보수	4	보수에 대한 만족감
	소명감	4	상담 및 상담 사례에 대한 책임감 및 보람 등
문항 계		246	

나. 최종 표본설계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는 아래 표 24와 같이 정리되었다.

표 24. 최종 표본설계

구 분	주요 내용
1.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의 상담사로서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과와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제송
2.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모집단: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관리하는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 중, 초기 또는 중간 단계의 발달과정에 있는 상담자 · 조사모집단: 청소년상담사 가운데 2급과 3급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조사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다 전망적 패널모형
4. 패널유지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연장 여부는 향후 검토)
5. 패널유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5년차 조사의 목표 패널유지율) ※ 표본대체는 실시하지 않음
6. 표본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급수와 성별을 감안한 층화확률표집
7.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PI(Tablet-Assisted Personal Interview) 기반 방문면접조사
8. 응답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조사에서 활용되는 응답자 관리 방법 적용

V. 논의

1. 요약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과정에 상담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성과는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하고 지원해야 한다. 청소년상담사의 상담전문성은 상담자 발달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의 경력 및 시간의 변화와 역동적인 청소년상담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는 변화하는 청소년 문제에 따라 청소년상담현장의 일선에서 일하는 청소년상담사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 개발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사는 상담뿐만 아니라 행정 등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청소년상담사가 처한 직무환경과 상담현장의 상황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상담자 발달이론에 기반을 두고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청소년상담사를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패널조사 모형을 개발하였다.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본설계와 표본설계, 조사 설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연구절차 및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본설계는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조사목적은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은 업무환경 등에 역동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사로서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과와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표본설계는 기존 패널의 특수성과 청소년상담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설계하였고, 이후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였다. 표본설계 결과, 목표모집단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관리하는 청소년상담분야 종사자 중, 초기 또는 중간 단계의 발달과정에 있는 상담사로 하였다. 그래서 조사모집단은 청소년상담사 가운데 2급과 3급 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설정하였다. 조

사모형은 중다전망적 패널모형으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패널유지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패널에서 응답자가 탈락하는 경우 표본대체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리하였다. 패널유지율은 패널유지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해당되는 5년차 조사에서 75% 수준을 고려하였다. 표본설계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급수와 성별을 고려한 층화확률표집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조사방법은 조사원과 응답자가 직접 대면하는 TAPI(Tablet-Assisted Personal Interview) 기반 방문면접조사로 결정하였다. 끝으로 응답자 관리와 개인정보관리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방향을 수립하였다.

셋째, 조사 설계는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사의 발달과 관련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상담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성하였고, 동시에 청소년상담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관련성이 높은 변인을 탐색하여 기초 설문지를 정리하였다. 이후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하는 FGI와 전문가 자문, 전문가를 통한 적합도 검증을 거친 설문지를 토대로 152명의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조사 설계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문항 신뢰도를 고려하여 2개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 상담사 발달(50개 문항)과 상담사 정체성(20개 문항), 대리외상(28개 문항), 상담사 소진(20개 문항), 직무스트레스(36개 문항), 자기효능감(40개 문항), 수퍼비전(12개 문항), 상담사 직무요구(40개 문항)로 모두 8개 변인 246문항으로 정리하였다. 그 외 응답자의 인적사항, 개인특성, 맥락적 환경으로 문항으로 정리하여 조사 설계를 마무리하였다.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성 발달 과정과 양상을 추적하기 위하여 패널조사를 구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은 표본설계와 조사 설계로 구성하여 개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본설계를 기반으로 향후 원활한 패널조사 운영 및 연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패널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패널 유지기간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유지기간을 5년으로 계획하였다. 청소년상담사 3급이 2급이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2년이 소요되며, 2급에서 1급이 되는 기간은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3년이 최소 소요된다는 가정 하에 5년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청소년상담사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

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만일 청소년상담사가 1급을 취득한 후에도 패널 조사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직업적으로 발달하는 경로를 계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향후 경력자들의 발달경로를 추적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직업과 관련한 타 패널 중 여성관리자 패널의 경우 1기 조사가 7차년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한국교육·고용 패널의 경우에도 12년간 추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소 연구의 목적과 현안은 상이할 수 있으나 직업과 관련한 패널을 장기적으로 추적한다는 점에서는 향후 이를 고려하여 패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사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TAPI 기반 방문 면접조사를 조사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조사원이 파견되고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응답거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연구목적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이끌어내기에 더욱 안정적인 방법이므로 타당한 방식이라 판단하여 면접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면접식 방식은 조사원을 교육시키고, 운영하는 데 있어 기간이 더 상당히 소요되며,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패널조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온라인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실제 한국노동패널에서도 2019년 22차 조사에서 온라인 조사를 일부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실제 사학연금패널과 서울교원패널에서는 온라인 조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온라인 조사는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으며, 면접원에 의한 오류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조사하는 경우 별도로 자료를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없으므로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모형을 구축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는 법률적으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청소년상담사 대상이므로 1년에 1회씩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하여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 참여자가 성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응답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산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방식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응답자 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타 패널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만원~3만원 내외의 답례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며, 응답에 적극적이거나 협조가 높은 참여자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하거나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설과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별도로 선물이나 감사카드를 발송하고, 경우에 따라 참여자 생일에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응답자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상담사 패널에서 제안하고 있는 패널 유지율 75%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하여 응답자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①패널조사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면접원과 응답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에 주력하여 응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②청소년상담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구축하는 패널은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개발 및 교육 및 지원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③응답자로 참여하는 청소년상담사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패널조사 결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성과에 대해 이슈리포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④패널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상담사에게 개인적인 성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별 설문조사를 분석 및 정리하여 그 결과를 제공해주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 ⑤타 패널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품행사를 통해 생활용품을 제공하거나 패널 참여 후 제공되는 답례품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답례품은 조사방법 및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 패널조사가 시행되거나 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사 설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패널 문항 조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상담사 패널은 상담사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사가 상담전문가로서 전문성이 발달해 가는 과정을 연차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래서 상담자 발달이론과 관련한 변인과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중심으로 문항이 구성되었으며, 8개 변인, 38개 하위변인, 24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현재는 전문가 자문과 152명의 예비조사로서 문항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보하였으며, 청소년상담사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에 따라 응답시간과 응답률을 고려하여 현재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1차년도에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에 따라 문항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조사 결과의 활용과 통계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사회 및 정책적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새로운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으로 인해 패널조사 목적이 추가될 경우 문항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은 청소년상담현장에서 구축된 근무여건 및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문헌연구 또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상담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사문항을 추가해 나가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원자료 데이터클리닝을 위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는 자료는 코딩과정을 거쳐 자료파일로 저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자료에 대한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거치는데, 항목별로 데이터클리닝을 처리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연도별로 추가되는 자료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만일, 데이터클리닝 과정이 연도

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거나 문항마다 부적절하게 적용될 경우 조사결과에 치명적인 손상을 미칠 수 있으며, 패널데이터로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1차년도 조사결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있는 기준과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사문항의 수 조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패널 문항수에 따라 패널조사에서 소요되는 시간, 응답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하여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예비조사는 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나 1차년도 조사는 대면방식으로 750명을 조사하게 되므로 패널조사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응답의 정확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조사응답에 소요되는 시간과 응답의 정확도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조사 설계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예비조사에 비해 문항의 신뢰도가 낮아지거나 응답의 불성실이 나타나는 문항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명확히 구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실사 및 자료 정리 단계에서 개인정보는 철저히 실사기관이 관리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원자료에 대한 접근 차단, 종이 조사표를 사용할 경우 조사표의 별도 보관 및 실사기관 자체 폐기, 분석을 위한 자료에의 접근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의 접근 차단 조치 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패널조사의 성격 상 개인정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실사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조치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패널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 사용자가 데이터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우선, 데이터 변수명 설정에 있어 조사 차수와 설문 종류 등의 정보를 반영하여 유저의 목적대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합 코드북을 마련하여 패널데이터에서 다루는 변인과 하위변인을 파악하고, 새로운 데이터 생성과 활용에 용이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관련한 변인별 응답 빈도 등 기초자료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변인의 속성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상담사 패널데이터 구축 및 관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상담사 패널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자료를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의 구축 타당성 및 유용성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소년상담사의 체계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데이터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패널조사에서 축적되는 기초데이터를 통하여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과정 개설 등 청소년상담사의 직무수행과 전문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진,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라 청소년상담사의 소속기관 및 직무를 고려한 교육 콘텐츠 또는 과정이 보수교육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종단적 데이터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상담사의 경력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전문성에 따른 교육과정이 맞춤형으로 개설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사의 급수, 직무 및 경력에 따른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설계를 제안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상담사의 경력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상담사의 직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관련한 현안을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청소년상담사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본 패널은 종단적으로 축적되는 데이터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상담사의 이직 및 직무 변화 등 경력경로를 추적하여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상담사의 근무영역 및 분야에 따른 실태를 장기적인 추적이 가능하므로 청소년상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상담과 관련한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추적 가능한 패널데이터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상담사 패널데이터 구축은 상담사 및 청소년상담사 발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종단적 데이터로서 상담분야 전문가에게 데이터 제공 및 학술분야 의제 마련 및 발전에 있어서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구축된 패널조사가 전산화 데이터 보관소를 구축 및 개방되어 다양한 학술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패널을 활용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연구물의 산출은 다양한 학문분야의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나아가 패널데이터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국가수준의 패널조사에서는 대부분 실사와 자료입력 및 응답자 관리 등이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때, 용역기관의 조사 역할을 검토하여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용역기관에서는 청소년상담사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기관을 관리감독 하는 과정에서 총괄 실행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명의 전담 인력이 확보되어 총괄실행팀이 구성되어 패널조사 실행 및 확산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가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양성된 청소년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패널조사를 구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상담분야

유일의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소지자를 대상으로 직무환경 및 숙련된 상담자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알아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둘째, 상담자 이론을 토대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장기적 측면에서 추적하여 청소년상담사가 시대적 이슈, 환경, 직무 및 전문성에 따라 그들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여 상담자 발달 경로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상담사 지원에 있어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 및 개입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본 패널 조사에 반영하고 있는 변인은 청소년상담사 발달이 청소년상담사 개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직무 및 환경 등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패널조사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개인역량 뿐만 아니라 직무환경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보다 제도 및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의의를 고려하더라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조사모집단이 청소년상담사 2급과 3급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상담사 1급의 수가 다른 자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인원이므로 패널조사가 진행될 때 유지율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예상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1급에 대해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코호트집단으로 추가하는 방안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모집단을 2, 3급의 청소년상담사 중 법률에 의해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대상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처음으로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패널유지율을 고려할 때 정보수집과 관리의 용이성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청소년상담사가 교육에 참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패널조사가 안정적으로 구현된다면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청소년상담사도 패널조사 대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022년에 참여한 보수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상담사의 집단을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특정연도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패널조사가 유지되는 동안 연도별 보수교육 집단의 특이성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2022년도 보수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상담사의 특수성이 패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사설계 과정에서 변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이루어졌으나 일부 변인 또는 조사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변인 중 대리외상, 소진, 스트레스 변인 중 일부 문항의 평균값이 0.76에서 2.0이하 값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응답자가 소수이거나 청소년상담사와 관련성이 낮은 일부 문항은 삭제하거나 문항별로 ‘해당사항 없음’을 포함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설계대로 표본추출방식을 반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문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해당사항 없음을 반영하거나 제안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1차년도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용노동부 (2017). **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해설서**. 한국고용정보원.
- 구분용 (2008).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고유영역과 전문성 강화방안. **21세기 청소년 포럼**, 47, 1-15
- 금명자, 정상화 (2021). 국내 상담자 발달 연구 동향. **교육문화연구**, 27(2), 483-506.
- 김광웅, 최명선, 김현주 (2004). **아동상담자의 발달수준과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심포지엄.
- 김계현 (1992). 상담교육방법으로서의 개인 슈퍼비전 모델에 관한 복수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4(1), 19-53.
- 김계현, 문수정 (2000). 상담 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18.
- 김동일, 이주영 (2022).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두현 (2009). 아동 청소년 통합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대회**, 5-21.
- 김보나, 임나영 (2018). 미술심리상담사의 발달수준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자기돌봄과 자기성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8(2), 1-21.
- 김영근, 김현령, 이정인, 신재훈, 신동미, 이상민 (2012).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41-670.
- 김은지, 강민희, 장재홍, (2016). 청소년상담의 초기에서 치료동맹을 촉진하는 상담자 개입. **청소년학연구**. 23(3), 215-238.
-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희, 하정희 (2020). 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이 상담자 발달에 미치는 영향: 슈퍼비전 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5), 281-293.

- 김준혜, 안현의 (2013). 상담자 발달수준, 마음챙김 및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인간이해**, 34(2), 95-109.
- 김지민, 임영식 (2018).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소년상담사의 부정정서전염, 직무환경특성 및 공감피로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9(2), 155-183.
- 김지경, 안선영, 이계오, 이미리, 김성식, 김명희, 박일혁 (2009).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KYPS)Ⅶ: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진숙 (2001). 상담자 발달 모형과 청소년상담자 발달연구의 필요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9-37.
- 김태완, 이병재, 이주미, 최준영, 김기원, 박수지, 송치호, 주찬희 (2018). **2018년 한국복지 패널 심층분석-해외 주요 패널과의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미, 최인화, 권현용 (2010). 청소년 상담자의 직무환경, 자아탄력성, 상담 자활동자기효능감이 상담자소진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논총**, 15(2), 173-194.
- 김현주, 이영애 (2007). 놀이치료자의 성인애착 및 상담자 발달수준과 치료적 동맹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0(4), 27-38.
- 나하주, 한영주 (2017). 비자발적 청소년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형성 과정: 상담자 경험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2), 1-31.
- 남희경 (2016). 대리외상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4), 703-723.
- 남희경, 장성숙 (2016). 숙련 및 초심 외상 상담자가 지각하는 대리외상의 영향과 대처에 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7(3), 1-22.
- 류진아, 방은진, 신혜민 (2021). 상담자 소진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22(3), 239-273.
- 류진혜 (1999). **상담자 교육을 위한 인지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수정 (1998).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선, 이영애 (2022). 상담자 슈퍼비전 작업동맹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놀이치료 연구** 25(1), 39-57.
- 박경호, 권희경, 박근영, 최인희, 송승원 (2021).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지선 (2019). 사이버상담 및 심리치료 동향,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3(12), 1571-1577.
- 박진술, 이영애 (2020). 상담자 역전이관리능력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놀이치료연구**, 23(2), 93-112

- 박효용, 민경화 (2021). 공공 상담기관 청소년상담자의 역할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 내재적 동기로 조절된 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2), 217-243.
- 배연옥, 조성호 (2009). 상담자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학생생활상담**, 27, 19-42.
- 소수연, 조은경, 조은희, 박선우, 전환희, 이동형 (2016).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유용성 척도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24(1), 107-129.
- 손은정 (2019). 슈퍼바이저의 불안정 애착과 역할갈등이 슈퍼비전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경력수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827-847.
- 손은정, 유성경, 강지연, 임영선. (2006). 슈퍼비전 작업 동맹과 상담자 경력 수준이 역할 어려움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695-711.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심홍섭, 이영희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28.
- 안수연, 하문선 (2022). 상담자의 신경증과 주관적 안녕감 간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상담자 발달수준의 이중매개효과. **문화와 융합**, 44(9), 465-480.
- 양미진, 조수연, 이소엽 (2012). 청소년상담사 개인 및 직무환경특성에 따른 소진 차이. **청소년상담연구**, 20(1), 17-35.
- 양재원, 배주미, 강석영, 박용두, 송미경 (2010).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성격과 조직변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8(1), 73-92.
- 오경자 (200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연구 보고서**.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오효정, 오은경, 김봉환 (2012). 상담자 경력과 사례개념화수준 간의 관계: 인지적 지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55-271.
- 유성경, 이문희, 조은향 (2010). 상담자 교육분석 경험 및 태도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8(1), 17-35.
- 윤성휘, 홍지영 (2017). 상담자의 발달수준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교육종합연구**, 25(3), 183-206.
- 윤정흠, 최한나 (2022). 상담자 발달수준과 상담회기평가의 관계: 상담자가 인식한 실제관계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11(1), 303-328.
- 이경상, 김기현, 임희진 (2007).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조사개요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미선, 권경인 (2009). 집단상담자 경력에 따른 집단상담 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상담학연구**, 10(2) 911-931.
- 이상리, 최윤미, 신호정 (2016). 긍정적 원가족 경험, 자기자각, 역전이 관리능력과 상담자 발달의 관계. **재활심리연구**, 23(1), 105-121.
- 이수현, 김동민, 서영석 (2006). 상담자의 애착유형과 상담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03-317.
- 이영애 (2015). 자기위로능력이 청소년상담사의 직무환경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238-249.
- 이영애, 변상해(2015). 자기위로능력이 청소년상담사의 직무환경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1, 238-249.
- 이영선, 이소래, 주성아, 고영빈, 김예진, 한인영 (2012). 응급구조원, 지하철 승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의 대리 외상과 외상 후 성장. **사회복지연구**, 43(1), 249-273.
- 이영순, 정봉희, 조혜경 (2007). 청소년상담사의 직무만족도에 따른 직무특성 분석. **韓國教育論壇**, 6(2), 67-86.
- 이윤주, 김계현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257-272.
-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상담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 이정숙 (2021). 청소년 상담에서 내담자가 지각하는 조기 종결 경험. **청소년상담연구**, 29(2), 267-296.
- 장세미 (1999). **상담자의 특성, 역전이 관리 능력 및 상태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재호, 조예지, 홍석현 (2021).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 장안덕, 이영순, 천성문 (2009). 상담자 교육을 위한 유식학적 집단상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韓國教育論壇**, 18(1), 239-263.
- 장인성, 이지은, 신선옥, 정현상, 권익성, 임태민 (2022). **한국노동패널 1-23차년도 조사자료**.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정문주, 조한익 (2016). 상담자 발달과 관련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및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7(6), 141-164.
- 정미연 (2019). **상담자의 직무 요구-자원 척도 개발 및 직무 요구-자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지희, 조은경, 남진연, 김지훈 (2019).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유용성 평가도구 개선연구**.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보고서.
- 정진, 송미경 (2021). 청소년상담자의 정서전염이 역전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소진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5, 169-195.
- 조민경, 장유진 (2018). 상담자의 상담경력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내담자가 지각한 상담자 특성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9(6), 129-153.
- 조은실, 이지영, 차윤지, 백인규, 양은주 (2022). 한국 상담자의 발달과 관련된 수퍼비전 요소에 대한 질적 메타요약.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2), 259-285.
- 조은희, 천성문, 2021. 청소년상담 수퍼바이저 발달과정. **상담학연구**, 22(4), 289-326.
- 조수연, 양미진 (2013). 청소년상담사의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1(2), 59-75
- 최수현, 반가운, 민주홍, 이은혜, 이지은, 손희전, 김혜정, 윤종혁 (2022).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II 기초통계분석보고서(2022)-제5차년도(2021) 자료분석**.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최정아 (2018). 법률 분석을 통한 상담전문직의 사회적 위상: 현황과 과제. **상담학연구**, 19(3), 341-366.
- 최정원, 문호영, 전진아, 박용천 (2021).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정호, 한영주 (2015). 청소년 상담에서 내담자의 상담기대, 작업동맹, 상담자 발달수준이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4), 113-132.
- 최한나 (2005). 상담자 발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연구**, 6(3), 713-727
- 최현국 (2020). 상담자전문성 발달과 상담교육 실태에 관한 고찰. **상담심리교육복지** 7(2), 199-223
-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표본가구의 패널 탈락 사유별 통계자료 요약. <https://www.koweps.re.kr:442/probe/result.do>.
- 한국고용정보원 (2021). **User's Guide YP2007 1~14차 조사자료**. 충청북도: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상담심리사 1급 자격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 수련 내용. http://www.krcpa.or.kr/sub03_3.asp?menuCategory=3.
- 한국상담학회 (2018). 1급 전문상담사 수련요건심사. <http://www.counselors.or.kr/KOR/license/process.php>.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유저가이드**. 경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6). **국가자격청소년상담사 인력 현황 조사 연구**. 부산: 한

- 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8). 국가자격청소년상담사 인력 현황 조사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1). 국가자격청소년상담사 인력 현황 조사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국가자격청소년상담사 인력 현황 조사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국가자격청소년상담사 인력 현황 조사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 국가자격청소년상담사 인력 현황 조사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a, (2022). 2022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연수 운영결과보고서.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b, (2022). 2022년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운영결과보고서.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 (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현민홍, 홍혜영 (2018). 슈퍼바이저의 지지가 초심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역전이 관리 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2), 301-319.
- Acker, M., & Holloway, E. L. (1986). The use of supervision matrix. An expert from supervision workshop: The matrix model. *Oregon Association of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Covallis, OR, Feb.
- Cohen, D. (1998). Culture, social organization, and patterns of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408.
- Chagnon J., & Russell (1995). Assessment of Supervisee Developmental Level & Supervision Environment Across Supervisor Experi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553-558.
- Fleming, J. (1953). The role of supervision in psychiatric training.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17(5), 157.
- Furr, S. R., & Carroll, J. J. (2003). Critical incidents in student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1(4), 483-489.

- Holloway, E. L., & Wampold, B. E. (1984). Dimensions of Satisfaction in the Supervision Interview.
- Hogan, R. A. (1964). Issues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 139-141.
- Howard, E. E., Inman, A. G., & Altman, A. N. (2006). Critical incidents among novice counselor trainee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6*(2), 88-102.
- Ieva, K. P., Ohrt, J. H., Swank, J. M., & Young, T. (2009). The impact of experiential groups on master students' counselor and personal development: A qualitative investigation. *The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34*(4), 351-368.
- Jennings, L., & Skovholt, T. (2004). *The cognitive, emotional, and relational characteristics of master therapists*. Master therapists: Exploring expertise in therapy and counseling, 31-52.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
- Lane, D. A. (2016). Counseling Psychology in Organizations: From Problem Fixing to Emergence and Growth. *The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e, S. M., Baker, C. R., Cho, S. H., Heckathorn, D. E., Holland, M. W., Newgent, R. A., ... & Yu, K.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psychometrics of the Counselor Burnout Inventory.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0*(3), 142-154.
- Lent, R. W., Hill, C. E., & Hoffman, M. A. (200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or Activity Self-Efficacy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97.
- Loganbill, C. R., Hardy, C. V.,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 3-42.
- Luther, A. E., & Barnes, P. (2015).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ePortfolios in Counselor Education: An Applied Retro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ePortfolio, 5*(1), 25-37.
- Nelson, K. W., & Jackson, S. A. (2003). Professional counselor identity development: A qualitative study of Hispanic student intern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31), 2-14.

- Morgan, D. L. (1998). *The Focus Group Guidebook*. CA: Sage Publications.
- Morrisette, P. J., & Gadbois, S. (2006). Ethical consideration of counselor education teaching strategies. *Counseling and Values, 50*(2), 131.
- Orlinsky, D. E., Rønnestad, M. H. (2015). Psychotherapists Growing Older: A Study of Rodenhauer S. W., Chauvin Joseph C., Szekely, P. A. U. L. (1998). MD/MPH students' and graduates' perceptions of training. *Medical Teacher, 20*(5), 480-481.
- Orlinsky, David E., and Michael Helge Rønnestad. (2015). Psychotherapists growing older: A study of senior practitioner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1*(11), 1128-1138.
- Rodenhauser S. W., Chauvin Joseph C., Szekely, P. A. U. L. (1998). MD/MPH students' and graduates' perceptions of training. *Medical Teacher, 20*(5), 480-481.
- Saldaña, J. (2021).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1-440*.
- Skovholt, T. M., & Jennings, L. (2004). *Master therapists: Exploring expertise in therapy and counseling*. Boston: Allyn & Bacon.
- Skovholt, T. M., & Ro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4), 505-515.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5). *The evolving professional self: Stages and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 Smith, A., & Koltz, R. L. (2015). Supervision of School Counseling Students: A Focus on Personal Growth, Wellness, and Development. *Journal of School Counseling, 13*(2), n2
- Stoltenberg, C. D. (1981). Approaching supervision form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e counselor complexity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9-65.
- Urofsky, R. I. (2013). The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promoting quality in counselor educ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1*(1), 614
- Van Wagoner, S. L., Gelso, C. J., Hayes, J. A., & Diemer, R. A. (1991). Countertransference and the reputedly excellent therapist.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8*(3), 411.
- Woodside, M., Oberman, A. H., Cole, K. G., & Carruth, E. K. (2007). Learning to be

acounselor: A prepracticum point of view.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7(1), 14-28.

Yu, K., Lee, S. H., & Lee, S. M. (2007). Counselors' collective self-esteem mediates job dissatisfaction and client relationship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4(4), 163-172.

부 록

1. 포커스그룹(FGI) 인터뷰 설문지
 2. 전문가 자문 질문지(1차, 2차, 3차)
 3. 예비조사 대상자 모집 설문지
 4. 예비조사 문항 및 최종문항
-

[부록 1]

2023년 청소년상담사 패널모형 연구를 위한 FGI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2023년 진행하는 '청소년상담사 패널모형 개발 연구'를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룹별로 정해진 일시에 질문지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예정으로
화상인터뷰가 가능한 환경·장소에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참여자 전원접속과 동시에 인터뷰 전 과정을 녹화할 예정이며, 녹화자료는
연구목적으로 활용되며 연구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본 연구종료 후 녹화자료는 파기할 예정이며
분석결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 정보는 삭제·마스킹 처리됩니다.

- 가. 연 구 명 : 청소년상담사 패널 모형 연구
- 나. 연 구 수 행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연수부
- 다. 인터뷰 일시 : 2023. 04. 26. 10:00-11:00, 14:00-15:00
- 라. 인터뷰 방법 : 실시간화상(Zoom) 표적집단면접
- 마. 인터뷰 내용
 - 변인 검토
 - 패널조사 실효성 및 활용 논의

FGI 담당자 연락처
청소년상담사연수부

인터뷰 질문지

1. 도입질문

1. 귀하의 현재 소속기관에서의 직위 및 주요 직무는 무엇입니까?
- 1-1. 소속기관에서의 직무가 상담전문가로서의 발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 1-2. 직무 외에 상담자 발달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2. 주요질문

(붙임1, 2) 참조

㉠ 변인점검

1. 해당 변인들이 청소년상담사의 상담자발달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변인으로 생각되십니까?
- 1-1. 변인 중 조사할 가치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변인은 무엇입니까?
- 1-2. 변인 중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변인은 무엇입니까?
- 1-3. (붙임2) 자료 외에 패널 조사할 필요가 있는 변인은 무엇입니까?

㉡ 사전조사

2. 표본설계 및 조사표 검토를 위해 상담현장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2-1. 사전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초보상담사', '실무상담자', '숙련상담자'의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2. 적절하지 않다면 초보상담사/실무상담사/숙련상담사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3. 변인 외에 조사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사전조사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3-1. 설문조사 방법으로 온라인조사와 지면조사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2. 설문조사 문항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3. 설문조사에 참여 대상자에게 적절한 답례품을 준다면 어떤 것이 적절할까요?

㉢ 패널조사의 실효성

4. 청소년상담사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 4-1. 조사대상을 추적 조사한다면 몇 년까지, 몇 년 주기로 조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4-2. 조사대상의 패널조사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려면 어떤 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모형 연구'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 고려할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마무리 질문

6.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붙임1)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조사개요

가. 조사개요(안)

조사명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전수/ 표본조사	전수()	표본(●) 표본 설계·조사주체 : 외부용역
작성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조사목적	1차 본 조사를 위한 기초(사전)조사를 통해 조사문항 및 패널 조사계획 수립(패널 표본 확정, 조사규모 및 소요예산 도출)	
조사대상	(목표모집단)청소년상담사 자격소지자 (조사모집단) 청소년상담사 자격소지자 중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 종사자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보수교육 의무대상기관 청소년상담관련업무 종사자 정보 수집	
조사내용	초보/실무/숙련 상담자의 발달 양상 및 상담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환경적 요인 파악 상담자의 발달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해 수준별 교육과정 구성 전문상담자 관련 정책개선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나. 조사계획(안)

4차 조사								▲ ■ ●
3차 조사						▲ ■ ●		
2차 조사				▲ ■ ●				
1차 조사		▲ ■ ●						
사전 조사	패널조사 모형구축							
구분 년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조사대상) ■ 숙련상담자 그룹, ▲ 실무상담자 그룹, ● 초보상담자 그룹

※ (붙임2) 검사변인

연번	변인	정의	하위변인	문항수
1	상담자 발달	상담자의 실제적 전문성 발달 수준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대화기술(10문항) • 사례이해(11문항) • 알아차리기(9문항) • 상담계획(11문항) • 인간적·윤리적 태도(9문항) 	50
2-1	상담성과 및 상담만족도	상담성과 및 상담만족도 측정 (상담자용)	*단일요인	8
2-2	상담성과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측정 (상담자용)	*단일요인	9
3	역전이 관리능력 및 활용	상담자의 역전이 내용과 관리능력의 정도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통찰(11문항) • 자기통합(11문항) • 공감능력(11문항) • 불안관리(8문항) • 개념화능력(9문항) 	50
4	대리외상	상담자의 대리외상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리적 영향(6문항) • 정서적 영향(4문항) • 인지적 영향(5문항) • 사회적 영향(5문항) • 상담관계 영향(4문항) • 긍정적 영향(4문항) 	28
5	상담자 소진	상담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자 소진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피로감(4문항) • 무능감(4문항) • 비협조적 업무환경(4문항) • 내담자 가치저하(4문항) • 사생활로 악화(4문항) 	20
6	자기탄력성	자기탄력성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감(9문항) • 대인관계 효율성(8문항) • 낙관적 태도(10문항) • 분노조절(2문항) 	29
7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대처 정도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대처-문제중심 대처(6문항) • 적극적 대처-사회적지지 추구(6문항) • 소극적 대처-정서적 대처(6문항) • 소극적 대처-소망적 사고(6문항) 	24
8	자기효능감	상담자 효능감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력기술 자기효능감(14문항) • 회기관리 자기효능감(10문항) • 상담난제 자기효능감(16문항) 	40
9	수퍼비전	수퍼바이저의 개인적 반응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퍼바이저에 대한 평가(4문항) • 상담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평가(4문항) • 수퍼비전에서 편안함 수준(4문항) 	12
패널조사 변인 및 척도 : 총 10개 변인				270

1차 전문가 자문 질문지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자문회의 주요 안건

본 자문회의는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패널조사 구축 및 모형개발 과정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점검하고,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문회의의 주요 안건 및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인 관련 사항(붙임2 참조)

-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상담자 발달과 관련한 변인의 적합성 검토 및 논의
-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에서 활용될 척도의 적절성 검토 및 논의
- 제시된 해당 변인 외 추가 변인에 대한 논의

■ 예비조사 관련 사항

* 표본 설계 및 조사 설계의 타당성 검증 등을 위하여 상담 현장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 예비조사 대상 구분과 기준의 적합성 논의
(ex, 초보상담자(경력 3년미만), '실무상담자(경력 3년이상~7년)', '숙련상담자(경력 7년이상)')
- 예비조사 방법, 절차, 결과 활용 방안 등 논의
- 예비조사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 논의

■ 기타

-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 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 청소년상담사 패널 활용을 위해 사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
- 청소년상담사 패널과 관련한 기타사항

2차 전문가 자문 질문지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척도 적합여부 서면 자문

□ 패널조사 변인 및 척도(안) (총 8개변인, 248문항) 적합 여부

연번	변인	정의	문항수	하위척도	적합	부적합	척도 관련 기타의견
1	상담자 발달	상담자의 실제적 전문성 발달 수준 측정	50	상담대화기술(10문항) 사례이해(11문항) 알아차리기(9문항) 상담계획(11문항) 인간적·윤리적 태도(9문항)			
2	상담자 정체성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측정	20	전문지식 및 기술(7문항) 역할 및 태도(5문항) 가치 및 신념(8문항)			
3	대리외상	상담자의 대리외상 측정	28	생리적 영향(6문항) 정서적 영향(4문항) 인지적 영향(5문항) 사회적 영향(5문항) 상담관계 영향(4문항) 긍정적 영향(4문항)			
4	상담자 소진	상담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자 소진 측정	20	신체적 피로감(4문항) 무능감(4문항) 비협조적 업무환경(4문항) 내담자 가치치하(4문항) 사생활로 악화(4문항)			
5	직무스트레스	상담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자 스트레스 측정	36	업무량(8문항) 조직관련 어려움(5문항) 상담관련 어려움(13문항) 관계갈등(10문항)			
6	자기효능감	상담자 효능감 측정	40	조력기술 자기효능감(14문항) 회기관리 자기효능감(10문항) 상담난제 자기효능감(16문항)			
7	수퍼비전	수퍼바이저의 개인적 반응 측정	12	수퍼바이저에 대한 평가(4문항) 상담료자의 자문에 대한 평가(4문항) 수퍼비전에서 편안함 수준(4문항)			
8	상담자 직무요구	직무요구 및 직무자원 측정	42	직무요구-역할갈등(7문항) 직무요구양적 업무 과부하(4문항) 직무요구질적 업무 과부하(4문항) 직무자원전문성 개발 기회(4문항) 직무자원-자율성(4문항) 직무자원-사회적지지(8문항) 직무자원-보수(4문항) 직무자원-소명감(4문항)			

연번	변인	정의	문항수	하위척도	적합	부적합	척도 관련 기타의견
-	기타	인구통계학적 요인	-	성별 연령(출생년도) 학력 전공, 자격취득 연도 및 급수 근무지역 기타자격증, 소속기관 근무형태, 주당 평균근로시간 소속기관내 역할 월평균소득 소속기관 복지 유무 전문성 개발위한 개인적 투자비용(돈, 시간)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경험 유무 (횟수)			
합 계			248				

□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관련 기타의견

3차 전문가 자문 질문지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설계(안)

1. 조사목적

- 청소년상담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차원은 물론 전문적인 차원에서의 발달 과정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2. 조사 대상

- 목표모집단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청소년 상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 가운데 초기 또는 중간 단계의 발달과정에 있는 상담자
- 조사모집단 : 현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중 1급을 제외한 2급과 3급 자격증 소지자

3. 패널조사를 위한 고려 사항

- 패널모형 : 중다 전망적 패널설계모형(multiple-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
- 패널유지기간 : 1급 및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실무경력 기간을 고려하여 적어도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추적
- 패널유지율 전망 : 조사 대상이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고 조사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호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5차년도 조사에서 원표본 대비 80% 정도의 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

4. 표본설계 : 층화비례추출

- 표집프레임 : 2022년 기준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참여자(4,740명)
- 표본크기
 - 보수교육 참여자의 증감을 감안하여 4,500명을 기준으로 오차한계를 3.5%로 설정할 경우 예상 표본크기는 668명 수준임
 - 668명을 원표본 유지율 80%인 5차년도 조사의 응답자 최소 수준으로 가정할 때, 1차년도 조사인원은 835명임
 - 무응답 등의 상황을 감안하여 1차년도에는 표본규모를 적어도 850명으로 설정
- 표본추출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참여자 집단의 급수 및 성별 분포를 감안하여 층화비례추출

5. 조사방법 :

- 인터넷 조사를 우선 고려하되 면접조사 가능성 검토

자문의견 요청 사항

1. 패널조사 표본 설계의 적절성

- 표본설계(안), 예상 패널유지율 등의 적절성 여부 및 개선방안

-
-

2. 패널조사 수행 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

3. 기타 의견

-
-

예비조사 대상자 모집 설문지

2023년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 대상자 모집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예비조사 참여자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연수부입니다.
청소년상담사연수부는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청소년상담사의 발달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청소년상담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초모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사의 발달을 장기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각 시기에 발생하는 청소년상담사
의 실태와 요구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상담사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중장기 정책과 제도에 반영 또는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에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최종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대상
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사는 연구 결과 도출 및 설문 문항 선정을 위한 절차로 적극적이며, 성실히
응답해주실 청소년상담사의 참여를 바랍니다.

- 조사대상: 청소년상담사
- 조사기간: 2023. 9. 19(화) ~ 26(화) 예정 ※ 참여자 모집 기간 : ~9. 10(일)
- 조사내용 : 상담자 발달 관련 설문 참여(약 250문항) 및 연구 관련 의견 제시
- 조사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연수부
- 조사문의:

참여자 인선은 연구진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9월 12일(화) 이후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예비조사 설문 최종 참여 후 소정의 답례품이 지급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사항]

■ 수집·이용 목적: 2023년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예비조사 모집 및 관리

■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이름, 소속, 핸드폰번호, 이메일, 학력, 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해당 연구 종료 후 파기

참여자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예비조사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십니까?

귀하의 개인 정보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예비조사 분석결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 정보는 삭제·마스킹 처리 됩니다.

동의 미동의

[참여 희망자 인적사항]

1. 귀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답: _____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성 여성

3. 귀하의 연령(만 나이)을 작성하여 주십시오.(작성예시: 만 35세)

답: _____

4.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서울특별시	<input type="checkbox"/> 부산광역시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input type="checkbox"/> 대구광역시
<input type="checkbox"/> 대전광역시	<input type="checkbox"/> 광주광역시	<input type="checkbox"/> 울산광역시	<input type="checkbox"/> 세종특별자치시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input type="checkbox"/> 강원도	<input type="checkbox"/> 충청북도	<input type="checkbox"/> 충청남도
<input type="checkbox"/> 전라북도	<input type="checkbox"/> 전라남도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input type="checkbox"/> 경상남도
<input type="checkbox"/> 제주특별자치도	<input type="checkbox"/> 기타		

5. 귀하의 연락 가능한 휴대번호를 정확히 입력바랍니다.

답: _____

6.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바랍니다.

답: _____

[참여 희망자 추가 인적사항]

1. 귀하께서 취득하신 청소년상담사 자격 급수는 무엇입니까?

*중복 취득자의 경우 상위급수 선택

- 1급 2급 3급

2. 귀하의 최종학력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학사 재학 학사 졸업 석사 재학 석사 수료
 석사 졸업 박사 재학 박사 수료 박사 졸업

3. 귀하께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외에 취득하신 자격증과 자격급수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1급	2급	3급	해당사항 없음
(교육부) 초중등 교사 자격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육부) 전문상담교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상담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귀하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디딤, 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단체 Wee센터 Wee스쿨
 학교(Wee클래스) 교육청산하기관 없음
 기타

5.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답: _____

6. 귀하의 경력은 약 몇 년입니까?

답: _____

[부록 4]

예비조사 문항 및 최종문항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연수부입니다.

청소년상담사연수부는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청소년상담사의 발달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청소년상담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초모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상담사의 발달을 장기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각 시기에 발생하는 청소년상담사의 실태와 요구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상담사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중장기 정책과 제도에 반영 또는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에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최종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조사는 연구 결과 도출 및 설문 문항 선정을 위한 절차로 적극적이며, 성실히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2023. 9. 19(화) ~ 26(화)
- 조사내용 : 상담자 발달 관련 설문 참여(약 250문항)
- 조사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연수부
- 조사문의 :

예비조사 설문 최종 참여 후 소정의 답례품이 지급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사항]

- 수집·이용 목적: 2023년 청소년상담사 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예비조사 모집 및 관리
-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이름, 소속, 핸드폰번호, 이메일, 학력, 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해당 연구 종료 후 파기 참여자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예비조사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 정보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예비조사 분석결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 정보는 삭제·마스킹 처리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상담자 발달 수준 척도]

※ 다음은 상담 전반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을 잘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 <.....> 상당히 일치한다			
		1	2	3	4
1	내담자의 말의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다				
2	내담자의 행동변화를 위하여 특정한 계획을 세운다.				
3	내담자에게 평가적이거나 판단적이지 않은 태도를 유지한다.				
4	내담자의 대인관계양상을 이해한다.				
5	내담자의 감정을 잘 포착한다.				
6	내담자가 표현하는 말의 의도를 안다.				
7	내담자의 핵심문제를 잘 파악한다.				
8	내담자와 상담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9	내담자의 내적상황을 잘 감지한다.				
10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				
11	내담자를 자신있게 대한다.				
12	내담자 말에서 중요한 주제를 잘 따라간다.				
13	내담자 변화를 잘 알아차린다.				
14	내담자가 상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				
15	내담자의 증상을 잘 파악한다.				
16	적절한 시기에 개입한다.				
17	내담자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18	내담자에게서 나온 자료를 종합하여 내담자를 이해한다.				
19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안다.				
20	상담자의 말의 의도가 분명하게 표현된다.				
21	내담자에게 진실하고 솔직하다.				
22	내담자가 자기를 탐색할 수 있게 대화를 이끈다.				
23	내담자 증상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어왔는지 안다.				
24	상담을 짜임새 있게 이끈다.				
25	대화의 맥락이 자연스럽다.				
26	바람직한 내담자의 행동을 강화해준다.				

번호	문항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 <.....> 상당히 일치한다			
		1	2	3	4
27	내담자를 보는 시간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28	내담자가 얘기하는 것의 이면이 드러날 수 있도록 묻는다.				
29	공감표현을 잘한다.				
30	상담목표와 일치하는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을 분별해서 사용한다.				
31	내담자 문제를 다루는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접근한다.				
32	상담목적을 분명히 잡고 상담을 이끌고 간다.				
33	지금-여기서의 내담자 감정에 대한 언급을 잘한다.				
34	내담자와 상담목표를 합의한다.				
35	내담자 대화에서 드러난 것 이면을 본다.				
36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좋아한다.				
37	내담자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38	내담자의 사회적 지지체제를 본다.				
39	내담자 문제에 가려진 내담자의 성장가능성을 본다.				
40	문제해결의 대안이 적절하거나 다양하다.				
41	내담자에 대한 평가(assessment)가 폭 넓다.				
42	내담자의 말이 모호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묻는다.				
43	상담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잘 본다.				
44	내담자의 진술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약한다.				
45	중요한 치료기법들을 제대로 사용한다.				
46	내담자 변화를 내담자가 인지하게 한다.				
47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주는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48	내담자 순간순간의 마음을 잘 잡는다.				
49	내담자가 현시점에서 상담하게 된 동기를 안다.				
50	내담자의 장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본다.				

[상담자 정체성 척도]

※ 다음은 상담자 전반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각문항에 대해 자신을 잘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1	나는 내담자 문제에 적절한 상담이론과 기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나는 내담자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다.						
3	나는 다양한 전문역할(예: 상담자, 교육자, 자문가, 평가자 등)을 해낼 수 있다.						
4	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례개념화 하기 위해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5	나는 상담 심리학의 중요 이론들을 잘 알고 있다.						
6	나는 상담 심리학의 최신 이론 및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7	나는 상담 심리학과 타 전문 분야(예: 의학, 법학, 교육학, 윤리학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고 있다.						
8	나는 상담자 자격 기준에 필요한 수련과 교육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9	나는 상담자의 역할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10	나는 상담자로서 나의 의사결정과 판단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11	나는 상담자 윤리강령의 실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						
12	나는 상담 수행과 관련된 윤리적 요소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						
13	나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돕는 일이 매우 뿌듯하다.						
14	나는 상담이 내담자의 강점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힘을 준다고 믿는다.						
15	나는 상담 전문직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16	나는 상담사의 활동이 사회의 복지와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17	나는 인간 존중의 철학적 입장을 지닌 상담자이다.						
18	나는 성찰과 자기 돌봄이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에 중요하다고 믿는다.						
19	나는 슈퍼비전이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20	나는 내담자의 권익과 복지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상담사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한다.						

[상담자 소진 척도]

※ 다음은 상담자가 느끼는 소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문항에 대해 자신을 잘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늘 그렇다
		1	2	3	4	5	
1	상담자라는 직업 때문에, 나는 대부분의 시간에 피곤함을 느낀다.						
2	나는 내가 능력이 없는 상담자로 여겨진다.						
3	나는 직장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4	나는 나의 내담자와 그들의 문제에 관심이 점점 없어진다.						
5	나는 상담자로 일하면서, 가족에게 소홀해져 간다.						
6	상담자라는 직업이 나를 진 빠지게 한다.						
7	상담자로서의 나의 능력에 실망해 간다.						
8	직장상사 또는 수퍼바이저에게 깔고러움을 느낀다.						
9	나는 내담자들에 대해 점차 무뎠어져 간다.						
10	내게는 개인적 관심사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11	상담자라는 직업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12	나의 상담 기술에 대해 자신이 없다.						
13	나는 직장의 조직체계에 꿈쩍없이 매어 있다.						
14	나는 내담자의 문제에 공감하기가 점점 힘들다.						
15	나는 친구들과 보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16	상담자라는 직업 때문에 어깨와 등이 뻐뻐해졌다.						
17	내가 내담자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자신이 없다.						
18	나는 직장의 조직체계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다.						
19	나는 내담자들의 행복에 대해 점점 걱정하지 않게 된다.						
20	나는 일과 내 개인생활의 영역을 분명하게 선 것이 어렵다.						

[직무 스트레스 척도]

※ 다음은 상담자가 느끼는 소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을 잘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 <.....> 매우 스트레스가 된다			
		0	1	2	3
1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의 부족				
2	지나치게 많은 종류의 업무				
3	모든 업무를 만족스럽게 할 만큼 충분치 않은 시간				
4	가정생활에까지 연결되는 업무				
5	너무 많은 내담자(환자)				
6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배우자(애인)와의 관계				
7	과도하게 긴 업무 시간				
8	충분하지 않은 여가 시간				
9	직장의 지원 부족				
10	학회 연수, 워크샵에 대한 재정적 지원 부족				
11	적절한 장비/물자의 부족				
12	직장의 열악한 관리(경영) 및 수퍼비전				
13	열악한 물리적 작업 여건				
14	내담자와의 증결				
15	내담자(환자)의 정서적 요구를 다루는 능력이 나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16	죽음이나 고통을 다루는 것				
17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18	전문적인 일과 개인적인 일을 분리하는 것의 어려움				
19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느린 내담자(환자)				
20	어려운 내담자(환자)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21	까다롭거나 요구가 많은 내담자(환자)				
22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해결)				
23	상담(치료)의 치료적인 효능에 대한 의심				

번호	문항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 <.....> 매우 스트레스가 된다			
		0	1	2	3
24	최신의 전문적이고 임상적인 기술을 유지하는 것				
25	치료적 관계의 유지				
26	상담(치료)에서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				
27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의 갈등 (예. 의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				
28	직속 상사와의 관계				
29	다른 전문가들과의 역할 갈등				
30	직장에서 의사소통과 정보교류				
31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하는 것				
32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의 비판(예. 의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				
33	조직 내 갈등 해결 방법				
34	동료의 정서적인 지원 부족				
35	직장에서 느끼는 공허감이나 고립감				
36	특정 동료와 같이 일하는 것의 어려움				

[자기효능감 척도]

※ 귀하는 앞으로 만날 내담자들에게 아래 제시된 상담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번호	문항	<.....>											
		전혀 확신 하지 않는다	0	1	2	3	4	5	6	7	8	9	완전히 확신 한다
1	신체적으로 당신의 몸을 내담자에게로 향한다.												
2	내담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포착하고 이해한다.												
3	내담자가 말한 것을 간결하고 구체적이며 분명하게 반복하거나 바꿔 말해준다.												
4	내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명료화하거나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한다.												
5	내담자의 감정을 강조하면서 내담자의 진술을 반복하거나 바꿔 말해준다.												
6	상담자의 성장사, 자격, 혹은 느낌과 같은 사적인 정보를 드러낸다.												
7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접촉할 수 있도록 침묵한다.												
8	내담자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바꾸고 싶어하지 않거나 바꿀 수 없는 불일치, 모순, 방어, 비합리적 신념 등을 지적해준다.												
9	내담자가 겉으로 말하는 것 이상을 이야기해주어 내담자의 행동, 사고, 느낌을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10	개인적인 통찰을 얻었던 상담자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해 털어놓는다.												
11	치료적 관계, 내담자와의 관계 또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즉각적인 느낌을 털어놓는다.												
12	자료, 의견, 사실, 자원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내담자에게 제시하거나 가르친다.												
13	내담자가 취할 행동을 암시하는 제안, 지시, 또는 조언 등을 내담자에게 제공한다.												
14	내담자가 회기와 회기 사이에 시도 할 치료적인 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한다.												
15	상담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상담회기의 흐름을 유지하고 초점을 맞춘다.												
16	매 순간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기초해 최선의 조력기술로 반응한다.												
17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 느낌 및 행동을 탐색 하도록 돕는다.												

번호	문항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전혀 확신 하지 않는다 <.....> 완전히 확신 한다 </div>									
		0	1	2	3	4	5	6	7	8	9
18	내담자가 '깊은' 수준에서 자신의 고민거리 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돕는다.										
19	내담자가 말한 다음에 무엇을 말해야 할 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안다.										
20	내담자가 현실적인 상담목표를 세우도록 돕는다.										
21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 느낌 및 행동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22	내담자 및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명확하 게 사례개념화를 한다.										
23	회기 중 당신의 의도(즉 개입 목적)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24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어떤 행동 을 취할지 결정하도록 돕는다.										
25	임상적으로(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을 경 험하고 있는 내담자										
26	성적으로 학대를 받아온 내담자										
27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내담자										
28	최근 외상적인 생활사건(신체적, 심리적 상처 혹은 학대)을 경험한 내담자										
29	극도로 불안한 내담자										
30	심각한 사고 혼란의 징후를 보이는 내담 자										
31	성적으로 끌리는 내담자										
32	상담자 개인적으로도 다루기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										
33	당신의 가치나 믿음과 충돌되는 핵심적 인 가치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내담자 (예: 종교, 성역할)										
34	당신과 현저하게 다른 내담자 (예: 인종, 민족, 성별, 나이, 사회계층 등)										
35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혹은 스스로를 성찰하지 못하는 내담자										
36	당신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내담자										
37	당신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반응(예: 지루 함, 성가심)을 갖게 만드는 내담자										
38	상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내담자										
39	당신이 제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내담자(만남의 횟수 혹은 문제 해결책 등)										
40	회기 중 교묘하게 당신을 통제하고 당신 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내담자										

[수퍼비전 척도]

※ 다음은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바이저들의 전반적인 문항입니다. 각문항에 대해 자신을 잘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수퍼바이저가 무엇인가를 말한 이후 때때로 나는 무슨 반응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2*	수퍼바이저가 한 말들 때문에 짜증이 났다.					
3*	때때로 수퍼바이저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화가 났다.					
4	나는 수퍼바이저를 만나서 그가 말하는 것들을 간절히 듣기 원했다.					
5*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인터뷰 동안 초조함을 느꼈다.					
6*	때로는 수퍼바이저가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내가 말한 것을 왜곡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7*	때때로 내가 난처한 상황에 있다고 느꼈다					
8	나는 이 수퍼바이저와의 경험을 통해 수퍼비전에 대해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9	나의 수퍼바이저가 말한 많은 것들이 실제로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다.					
10*	가끔 수퍼바이저에게 내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망설였다.					
11	나의 수퍼바이저의 태도는 내가 수퍼비전에서 정말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12*	나의 수퍼바이저는 내가 내담자에 대해 어떤 결론들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느껴졌지만 나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몰랐다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상담자 직무 요구-차원 척도]

※ 다음은 상담자로서 수행하는 상담 업무 요구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각문항에 대해 자신을 잘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현재 상담 업무 외에 다른(행정, 사업 등) 업무들을 함께 하고 있다.						
2	현재 개인 상담보다 행정, 서류, 사업 등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서 상담자 정체성에 혼란을 경험한다.						
3	현재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심리검사, 상담수퍼비전 등 오롯이 상담 업무만하고 있어서 정체성에 혼란이 없다.						
4	현재 상담자인지 행정가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5	현재 상담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할 때 회의감이 든다.						
6	현재 서류작업과 행정업무에 몰두하여 상담 준비를 못하거나 상담에 집중을 못할 때가 있다.						
7	현재 서류작업과 행정업무는 상담과 관련된 최소한의 것만 한다.						
8	근무 기관에서 가시적인 상담 성과에 대한 부담을 준다.						
9	현재 사례수 위주의 상담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						
10	현재 휴식을 취할 여유 없이 많은 양의 상담사례를 하고 있다.						
11	기본적으로 한 주에 해야 하는 상담사례 혹은 수련, 상담사례 지도 등의 상담본연의 업무량이 많다.						
12	현재 기관을 통해 의뢰 받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부담감을 느낀다.						
13	현재 기관을 통해 의뢰 받은 내담자의 보호자가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부담감을 느낀다.						
14	현재 기관을 통해 의뢰 받은 내담자가 상담에 비협조적이고 상담 동기가 없어서 부담스럽다.						
15	현재 기관을 통해 의뢰 받은 내담자의 보호자가 상담에 비협조적이고 상담 동기가 없어서 부담스럽다.						
16	현재 업무는 다양한 상담사례를 만날 수 있어서 상담자로 성장할 기회를 갖는다.						
17	현재 기관은 상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한 상담 사례수가 확보되고 있다.						
18	현재 기관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상담자 성장에 도움이 된다						
19	현재 기관에서는 다양한 상담 경험과 상담 실무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20	현재는 상담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상담자 성장의 기회가 된다.					
21	현재 업무는 상담자 경력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					
22	현재 업무는 상담 역량을 키우고 전문가로 발전하도록 한다.					
23	현재 기관에서 나는 상담 스케줄과 사례수를 조절할 수 있다.					
24	현재 상담 업무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며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25	현재 기관 내에서 소통이 가능하여 업무에 대해 조율을 할 수 있다.					
26*	현재 상담업무 계획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다.					
27	(수퍼바이저)현재 수퍼바이저는 내가 심리적으로 힘들 때 위로해 준다.					
28*	(수퍼바이저)현재 수퍼비전을 받지 못해 수퍼바이저의 도움을 못 받고 있다.					
29	(수퍼바이저)현재 수퍼바이저의 지도가 상담업무에 도움이 된다.					
30	(동료)현재 기관 내 동료들과 업무에 대해 서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받는다.					
31	(동료)현재 기관 내 동료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분위기이다.					
32	(기관장) 현재 기관장과의 소통이 원활하며 관계가 원만한 편이다.					
33*	(기관장) 현재 상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기관장을 설득하고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 힘들다.					
34	(기관장)현재 기관장은 나를 신뢰하고 지지해 준다.					
35	현재의 보수에 만족한다.					
36*	현재 일하는 시간과 양에 비해서 보수가 적다.					
37*	현재 경력과 학력이 보수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38*	상담공부, 수퍼비전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기에 현재 보수가 적다.					
39	내담자를 돕는 것이 삶의 큰 의미이다.					
40*	현재 상담업무에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있지 않다.					
41	평생직이라 여기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42	현재 주어진 상담사례를 잘 수행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크다.					

*문항은 역채점 문항임

※ 최종문항에서 3번, 7번문항은 제외됨

[대리외상 척도]

※ 다음은 외상을 경험한 내담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상담자가 겪는 현상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을 잘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내담자의 외상 이야기를 듣고 잠이 오지 않거나 악몽을 꾸기도 한다.					
2	내담자를 충분히 돕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낀다.					
3	내담자의 외상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					
4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면서 대인 관계가 점점 더 제한된다.					
5	퇴근 후에도 내담자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고 걱정된다.					
6	내담자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7	내담자의 외상 이야기를 들으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8	가해 이야기를 계속 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나 호의를 의심하게 된다.					
9	나의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진다.					
10	가해 이야기를 자주 접하면서 내 가족의 안전을 의심하게 된다.					
11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이나 화를 낸다.					
12	내담자의 힘든 얘기를 듣다보면 상담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지키지 못한다.					
13	내담자를 지원하면서 내 배우자나 파트너를 성적으로 멀리하게 된다.					
14	외상을 이겨내고 성장해가는 내담자를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15	내담자를 지원하고 나면 단 음식(초콜릿, 사탕, 과자 등)이 당긴다.					
16	내담자에게 과도하게 애정을 쏟거나 도움을 주려고 한다.					
17	내담자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					
18	내담자를 지원하면서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19	내담자를 지원하는 일을 중시하다보니 가족에게 소홀해진다.					
20	내담자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중압감이 커진다.					
21	힘든 내담자를 지원하면서 상담가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22	내담자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우울해진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5	
23	외상의 영향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내담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24	가라앉은 내 기분이 동료들에게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된다.						
25	내담자가 같은 문제행동을 반복할 때 나도 무력감에 빠진다.						
26	내담자 외상 이야기가 너무 끔찍하고 무섭게 느껴진다.						
27	내담자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을 만큼 진이 빠진다.						
28	내담자를 지원하고 나면 어깨가 딱딱해지거나 소화가 안되는 신체증상을 느낀다.						

[인구 통계학적 질문]

※ 다음은 인구 통계학적 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2. 연령(만나이)				
<input type="checkbox"/> 20대	<input type="checkbox"/> 30대	<input type="checkbox"/> 40대	<input type="checkbox"/> 50대	<input type="checkbox"/> 60대 이상
3. 학력(최종 학위 기준)				
<input type="checkbox"/> 교육학	<input type="checkbox"/> 사회학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학	<input type="checkbox"/> 심리학	<input type="checkbox"/> 아동학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학	<input type="checkbox"/> 기타			
4. 지역				
<input type="checkbox"/> 강원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경남	<input type="checkbox"/> 경북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대전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세종
<input type="checkbox"/> 울산	<input type="checkbox"/> 인천	<input type="checkbox"/> 전남	<input type="checkbox"/> 전북	<input type="checkbox"/> 제주
<input type="checkbox"/> 충남	<input type="checkbox"/> 충북	<input type="checkbox"/> 기타		
5. 청소년상담사 취득 급수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input type="checkbox"/> 3급		
6. 소속기관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상담복지센터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쉼터	<input type="checkbox"/>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디딤, 인터넷드림마을)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자립지원관	<input type="checkbox"/>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청소년단체	<input type="checkbox"/> 학교	<input type="checkbox"/> Wee센터/Wee스쿨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산하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7. 직위/직급				
답: _____				
8. 근무형태				

- 정규직(풀타임) 정규직(파트타임) 비정규직(풀타임)
 비정규직(파트타임) 기타

9. 귀하의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는 얼마입니까?

답: _____

10. 귀하의 일주일 총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 총 근무시간은 정규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답: _____

11. 상담 경력(개인 면접 상담경력에 한함)

- 예시: 5년 6개월
- 주 1사례 이상 개인 면접 상담을 한 경우에만 경력기간에 포함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_____

12. 수퍼바이저 경험 유무

- 있음 없음

13. 수퍼비전 받은 경력

- 예시: 약 10회/총 수퍼바이저 3명(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경험 없으면 '없음'으로 작성

답: _____

Abstract

The Development of a Panel Survey Model for Youth Counselors

The need for specialized youth counseling personnel has been emphasized as issues such as gambling addiction, truancy, school violence, and suicide/self-harm among adolescents become increasingly serious. In line with this trend, youth counseling,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qual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Youth Basic Act in 1991, has trained 33,817 youth counselors from 2003 to 2022. The number of trained individuals has been increasing annually. Youth counselors, as qualified professionals, engage in community collaboration, emotional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adolescents, and counseling welfare service support. Those with youth counseling qualifications work in various fields such a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youth counseling institution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probation offices, and flight prevention centers. With the growing number of qualified individuals and expanding areas of activity, the Youth Counseling Training Division has been conducting continuing education since 2013 to enhance the capabilities and qualifications of youth counselors. The training content is updated annually to reflect the demands of practitioners and contemporary issues. However, as youth issues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and youth counselors are required to take on various roles beyond psychological counseling, there is a growing need for research on the roles and professionalism of youth counselors.

The youth counselors experience high job stress and burnout as they perform various duties beyond counseling,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affiliated institutions and the main counseling clientele. In other words, despite playing diverse roles in the field, there is a clear lack of definition regarding what and how much they should perform. Particularly, youth counselors dealing with sheltered adolescents and those who have experienced sexual violence show signs of chronic stress and vicarious trauma. According to the Youth Counselor Workforce Status Surveys in 2016 and 2019, dissatisfaction with

salary and working conditions is high, and even when employed, there is a high proportion of non-regular employment, indicating a shortage of quality jobs. Moreover, there is no legal basis guarantee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counseling practices, and the ambiguity in differentiation from adjacent fields leads to confusion about roles and responsibilities. Additionally, the varied competencies required for professional growth as a counselor make it challenging to regulat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is study aims to select variables that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counselors based on counselor developmental theory. It seeks to design a practical panel survey model by conducting a panel survey and sample design of youth counselors, focusing on the process of novice counselors growing into seasoned counselors.

In this study, we explor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milar panel surveys and developmental research on counselors to develop a panel survey model.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FGI) with practitioners in the field of youth counseling and consultation with academic experts, we selected the survey items. Next, we reviewed existing longitudinal study cases, similar panel survey methods, and content. Through an analysis of the youth counselor workforce, including major hiring institutions and the number of trained personnel by qualification level, we determined the sample size and extraction method for the sample survey structure. The sample size and extraction method were finalized through consultation with research experts. Subsequently, we confirmed the preliminary survey items by validating the content validity of measurement tools and questions with input from academic experts. A pilot survey was conducted with 152 participants who completed youth counselor continuing education. The reliability analysis was based on the coefficient of internal consistency, and inappropriate items were eliminated. Feedback for consideration in the first-year survey was collected. Finally, based on the confirmed items and sample design, we derived the panel survey model.

The research results finalized a total of 246 items across eight variables to measure the changing professional development of youth counselors. These variables include counselor development, counselor identity, vicarious trauma, counselor burnout, job stress, self-efficacy, supervisory support, and counselor job demands. The survey targeted counselors who obtained 2nd or 3rd-grade qualifications, excluding the relatively scarce 1st-grade qualification holders, and who completed continuing education in youth

counseling. Based on the status of continuing education completions, the sample design indicated that at least 750 respondents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first-year survey. Stratified probability sampling, considering qualification levels and gender, was deemed suitable. To examine counselor developmental patterns over time, a multi-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 was applied. Due to the requirement of a minimum of 2 to 4 years of practical experience for higher-grade qualifications, a 5-year panel survey was planned to observe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counselors, with a target panel retention rate of 75%. For the survey method, the use of Tablet-Assisted Personal Interview (TAPI) based on face-to-face interviews was considered. It was noted that measures for panel dropouts, reten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need to be incorporated to minimize sample loss until the completion of the survey.

This study is noteworthy in that it derived variables necessary for novice counselors entering adolescent counseling to develop into skilled counselors and formulated a panel survey model based on the necessary sample design before conducting the actual panel survey. At a time when collaboration between mental health and adjacent fields is emphasized, examining the unique expertise of adolescent counselors and the job requirements in their developmental process can solidify the role of adolescent counselors and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career development. Based on the sample design propos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or future research. Firstly, although the suitability of preliminary survey items was ensured through preliminary investigations and expert consultations, there is a need to add items in response to the demands of statistical users and changes in social and policy contexts. Additionally, an analysis of factors such as time consumption and the possibility of insincere responses should be conducted to systematically design the survey and methods. Secondl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ystem for protecting and managing respondents' personal information. Clear regulations regarding the storage and access to the raw data accumulated over five years are necessary. Thirdly, it is necessary to build panel data that is easily accessible and usable. Providing an integrated codebook for researchers and information users or planning events such as data utilization conferences can be methods to facilitate access and utilization. However, this study excluded level 1 youth counselors from the survey population, failed to consider a wide range of qualification holders by focusing on those

subject to mandatory continuing education, and verifi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urvey questions. There is a limitation of the study in that the method was limited to examining item internal fit and content validity.

* Keywords: Youth Counselor, panel surveys, Counselor Development